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린인 정기로 빛아래 인결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제917호

## 개교기념호 지면 안내

개교 62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 02

보도

개교 62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교수네트워크 65명 교수 시국선언  
탐라문화연구소, 30일 4·3국제학술대회

>> 03

보도

사설 - 제주대학교에 대한 우리의  
더 큰 사랑을 위하여  
-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 04

기획

첨단과학단지 기업 탐방 <2> JDC  
대학생 아카데미 - 구범준, 이지연씨

>> 05

학술

기고 -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살아가는  
독일사회 본받아야

>> 06

개교기념

기고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 위해  
언어왜곡 바로 잡아야

>> 07

6·4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지상 인터뷰  
“대학원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

>> 08

6·4 지방선거

기고 - 도지사 후보에게 바란다

>> 09

개교기념

아라캠퍼스를 알고 싶다  
대학생으로 시간 되돌릴 수 있다면

>> 10

창간기념

기고 - 실패 겁내지 말고 실험 변신 시도해야  
돌고 도는 신문사 생활, 당신의 운명은?

>> 11

개교기념

대학에 헌신하는 숨은 분들을 찾아서  
제주대에서 만나는 타 지역 학생

>> 12



**마라도 등대** 최남단 마라도의 밤풍경은 오염되지 않은 어둠으로 짙었다. 아무리 많은 파도가 쳐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 그 곳에서 99년째 마라도 등대는 한반도 시작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을사조약체결 10년 뒤인 1915년 3월 첫 불을 밝힌 등대는 일본군에 의해 처음 설치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구성원 모두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배려와 희생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한다. 강희만 한라일보 사진부장

축시

## 새 하늘 열고 새 세계 창조하자

- 제주대학교 개교 62돌에 부쳐

문 충 성

은 세상이 새파랗게 일렁이는 이 5월에  
제주대학교는 태어났네.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국문과, 영문과, 법과, 축산과 4개 학과  
2년제 제주초급대학으로

역사의 변방에서  
눈물과 한숨 속  
팍팍한 삶 일구며 살자니  
자유여, 평등이여, 박애여, 아아! 민주주의여!  
억압과 수탈과 무지여!  
못 배운 게 한이 되던 때도 있었네.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창조의 세계 열어난 지 62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 문화의 섬 되는 주역으로  
제주대학교는 성장해 왔으니

이제  
대학만도 12개, 70개 학과  
9개 대학원에 석·박사과정 둔  
재학생 1만여 명 가르치는 학문의 전당 되었구나!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 향해

제주대학교여!  
평화 속에 넘쳐나는 풍요로움 만끽하며  
새 하늘 열고 새 세계 창조하자!  
제대인이여!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같은 대학교 불어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제주대 명예교수

△ 계간 『문학과지성』을 통해 시단에 데뷔, 시집 『제주 바다』,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내 손금에서 자라나는 무지개』, 『허물어버린 집』 등 다수.

UNESCO WORLD HERITAGE SITE  
NA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관광객 천만 시대! · 인구 60만 시대! · 메이드인 제주 시대!

인구 60만 시대!  
관광객 1천만명 달성!  
120만 제주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뤄 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 그리고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오년 말의 해,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향해 조랑말처럼 달려갑시다.



# 험난해도 멈출 수 없는 대학혁신의 길

## 개교기념식사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개교 6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 제주대학교의 출범과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미래의 과제를 가다듬고 발전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금으로부터 62년전 오늘, 4개 학과, 8명의 전임교원, 신입생 58명의 도립 초급대학으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9개 대학원, 12개 단과대학, 1200여명의 교직원과 1만2000여명의 재학생, 그리고 6만 6000여명의 동문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의 성장은 바로 그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성장에는 제주의 선각자들과 학부모님, 선배 교직원과 수많은 동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지난 세월동안 땀과 눈물로 위대한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개척해온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교는 역동적인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BK플러스 21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돼 7년간 10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정부지원 그린캠퍼스 대학 선정’, ‘정부 수산백신연구센터 주관기관 선정’, ‘거점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 성과를 거둬, 작지만 강한 우리대학교의 역량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초 발표된 2단계 전국 산학협력선도대학 평가결과, 우리 대학교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 전국 41개 대학 중 1등으로 재선정되어 연간 51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대라는 편견속에서 대학과 기업간의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궈낸 값진 성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전국 수의과대학 중 최초로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하였고,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 95.1%로 전국 1위,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하는 등 각종 국가고시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취업률은 거점 국립대 중 2위, 22개 국립대 중 6위를 차지함으로써 지방대의 한계를 극복하여 취업에도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SCI논문은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2010년 4천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7천2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논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대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모두 논문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교수의 경우 1인당 평균 논문 상송폭이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제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뜨거운 애교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급격한 학생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빠른 걸음으로 학과별 평가결과에 기반한 정원 조정과 학과 자율적 구조조정을 병행



허형진 총장

추진하여 201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의 10%인 234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4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학생 등록금은 지난 6년간 인하 또는 동결되었고, 기성회의 폐지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통한 발전의 열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험난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제9대 총장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비전과 4대 발전목표 및 세부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 대학, 경쟁력 있는 지식 창출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 지구촌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열린 대학, 그리고 제주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지역발전 선도대학이 그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 대학은 일류 명문대학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총장이나 주변 일부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뜨거운 애교심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모든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앞장서 헌신하겠다는 점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선도대학의 사례처럼 다른 국내 대학들에게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명품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대학교 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신뢰와 포용, 지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토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을 향한 험한 도약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도전과 역경이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됨으로써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제주대학교의 저력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입니다.

끝으로, 62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내외 귀빈과 도민 그리고 대학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형 진

# 제주발전 위해 긴밀한 대학 협력 기대

제주대학교 개교 62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2년의 긴 세월 동안 제주대학교는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제주가 최근 4~5%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성장 산업들이 역동적으로 육성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지난해 1천만 관광객 달성, 인구 60만시대 개막이라는 제주 역사

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배스, 모뉴엘 등 기업이전을 통해 지역경제파이가 커지고 있고,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등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융합해수, 제주맥주, 프리미엄생수 등의 물산업,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풍력발전 투자확대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도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2천만 관광객, 도민 소득 3만불, 인구 70만 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대가 대내외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성과와 발전은 제주미래에 대한 더욱 큰 희망을 그리게 합니다.

제주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바람이 나서 세계시장을 누비는 제주의 기업들,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한 자원이 첨단기술과 융합하고 문화예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 일자리를 찾는 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들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더욱 다양하고 비전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주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주도정과 제주대학교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앞으로 아시아 중심, 세계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거듭 개교 6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62년 역사·전통 자랑 인재배출 산실로 ‘우뚝’

사랑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았습니다. 6만여 동문과 함께 예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제주대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문무겸·강석범·현평호 선생님 등이 주축이 돼 제주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먹을 끼니 걱정을 하는 전쟁 와중에 무슨 대학원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실이 없어 제주향교 명륜당을 강의실로 사용했습니다.

이 대학원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주대학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2년제 도립 제주초급대학이 인가됐으며, 8월에는 제주향교 명륜당에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국문과, 영문과, 법과, 축산과 등 4

개과에 전임교수는 7명, 학생은 58명 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제주농고로 잠시 옮겼다가 55년에는 웅담동 캠퍼스로, 80년대에는 아라캠퍼스 시대를 맞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 제주대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교락을 함께 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제주대가 배출한 인재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유일 한 인재배출 요람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62년 동안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에서 우리 제주대는 거점국립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1위, 전국 2위를 기록하기

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제주대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27개국 179개 대학 25개 기관과 학술교류 또는 협정을 맺는 등 국제적으로 힘찬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수가 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도 사람도 제주도’로 바뀌어도 좋을 것입니다.

동문회장으로서 가슴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선배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학 설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 가족 모두는 대학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 역시 지역사회와 제주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대학교 개교 62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모든 동문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허형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태한 총동창회장

# 평생교육 담당할 교육품질 갖출 때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꾼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삶과 사회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의 반대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밤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는 느낌도 떨칠 수가 없다. 대학의 미래의 꿈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나 교육의 기회는 크게 확대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해준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체계의 품질이나 교육의 품질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임에도 대학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학입학 지원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즉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강해서 시장의 힘에 의해 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생존은 풍부한 수요에 있었지 교육의 품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IMD의 평가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25위로 국가경쟁력 22위보다 낮다고 한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한다. IMD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은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학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이다. 2013학년도 대학입학정원(55만 9036명)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년에는 초과정원이 16만 1038명에 달해 미충원 대학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대학을 구조 조정한다하여 입학정원을 수요 공급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대학의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은 세계 교육경쟁력에 초점을 둔 교육품질의 강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고령화는 대학에게 성인 재교육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평균 70년을 일하게 되어 평생 동안 적어도 직업을 대어섯 번은 바꾸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노동 인생 70년 동안 대어섯 가지의 직업에 종사하며 살려면 평생 배워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인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대학이 필요하다. 직업을 바꿀 때마다 수시로 대학으로 돌아가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만간 대학은 20대에 한 번만 거치면 되는 통과의례 과정이 아니라

인제든 돌아가 몇 번이고 새로운 학위를 취득하는 곳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물결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앞서 갈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다. 미래 비전은 현재를 바꾸는 혁신의 추진력이다. 미래의 성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래는 꿈꾸는 자가 창조하는 것이다.

개교 62주년. 길여진 우리 대학의 연륜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 대학만의 내세울 수 있는 교육품질을 갖출 때 도 됐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우리가 창조해야 한다.



송석연 교수회장

# 글로벌 대학의 명성에 걸맞은 책임 보여야

1952년 제주초급대학으로 시작한 제주대학교가 개교 62주년을 맞이한다.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당시 5개 단과대학 2개 대학원 규모에서 이제는 12개 단과대학 9개 대학원에 학생 수만 1만2000여명에 이를 정도의 매머드급 대학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이면에는 제주대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녹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문으로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개교 62주년을 맞이하여 마냥 들뜬 분위기에 자축만 하고 있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

제주대학교는 외향적으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을 감축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립 제주대학교에 불어 닥친 변화의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솔개는 수명이 70년에서 80년이 될 정도로 장수하는 맹금류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솔개는 40세 정도가 되면 발톱은 구부러지고, 부리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솔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힘든 변화의 과정을 이겨내야만 한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변화를 선택한 솔개는 스스로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가 혹독한 시간을 버텨내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얻어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된다.

이렇게 모질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솔개는 그 이후로 30

년 넘게 생명을 연장한다고 한다.

선택의 기로에 선 솔개처럼 제주대학교의 앞길에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선택의

정상의 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지는 것이 아니다. 100년 대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주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분발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제주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의 명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당당한 과제를 해결하고 천년 대학으로 성장하여 인류 발전에 헌신하는 일과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드높이길 기대해 본다.



류재식 기성회장

# 공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되는 대학이 되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경상대학 경영학과 08학번 고광표입니다.

파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여유있게 해주는 5월입니다. 대다수의 단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체육대회와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제주대학교 일만이라 학우들은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7일 개교 62주년을 맞이하는 개교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개교 62주년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고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학교의 영광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52년 대학설립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염원으로 설립된 제주대학교는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는 앞장선 대학으로서 발전해왔습니다.

그 이후 60여년 동안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한 지금의 제주대학교는 명실공히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진리 정의 창조 의 교훈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 학문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며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대학교가 더욱 더 진보할 수 있는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인재들을 유지하며 전국에 있는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끊임없는

연구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과 공지를 갖고 국가와 지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의 주인인 3주체가 노력을 한다면 제주대학교는 당연히 명품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 목소리가 학교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행동하며 결국 이는 학생들의 삶이 뿌리내릴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의 가장 큰 공약인 생활권, 수업권, 문화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더 나은 복지와 편의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함에 젖어 안타까움과 분노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대학생들은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로서 이번 일을 잊지 말고 가슴에 기억하여 변화된 나라로 발돋움하는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주대학교 62주년 개교기념일을 축하하고 제주대학교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고광표 학생회장



# “애교심 갖고 힘찬 도약” 개교 62주년 기념식 개최

## 근속 및 공로 유공자 표창

### 우수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개교 62주년 기념식이 26일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대학헌장 낭독, 학사 보고, 발전기금 전달, 교직원 공로패·표창장 수여, 기념사, 축하사, 교가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허항진 총장은 “62년전 도립 초급대학에서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했다”며 “모두가 뜨거운 애교심을 가지고 힘찬 도약을 한다면 명품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교기념식 감사패·표창패 수상자 명단.

▲(주)한라산기금 우수교수 연구기금증서 △교수=현정석(경영정보학과), 한남익(초등교육과)

▲(주)한라산기금 외국어 우수학생 장학증서=소상재(수의예과 1), 박예은(영어영문학과 3), 조윤희(행정학과 2), 김나영(환경공학과 1), 김주희(수의학과 1), 임영선(수의학과 1), 김동수(관광경영학과 4), 김윤지(생활환경복지학부 2)

▲3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교수=변명섭(영어영문학과), 이기석(영어영문학과), 김승환(영어일문학과), 유철인(철학과), 김석준(사회학과), 강근형(정치외교학과), 김형길

(경영학과), 김영춘(무역학과), 김태곤(국어교육과), 김종훈(영어교육과), 한석지(사회교육과), 김도현(수학교육과), 고봉수(수학교육과), 송창길(생물산업학부), 고석찬(생물학과), 이화자(생물학과), 김장형(컴퓨터공학과), 박순방(음악학부) △직원=이상원(교무과), 김석건(입학관리과), 이희숙(재정과), 김정선(취업전략본부), 송여심(인문대학), 부홍진(사회과학대학), 양연화(사회과학대학), 현승호(경상대학), 강상현(생명자원과학대학), 부진희(자연과학대학), 홍여옥(교육대학), 강권의(교육대학), 김희선(간호대학), 고영숙(학생생활관), 강택주(교육대학부설초)

▲2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 △교수=서일교(건축학부), 임종환(메카트로닉스공학과), 천원기(에너지공학과), 조지노(초등교육과), 문영만(산업디자인학부), 이남호(화학·코스메틱스학부), 송춘복(해양의생명과학부) △직원=최진호(국제교류본부), 김호선(인문대학), 현선옥, 임봉식, 강승환, 강성국, 현대영, 부영진, 김홍열, 유상남(이상 해양과학대학 부설 실습선), 김승필(해양과환경연구소), 김경식(사범대학부설교)

▲2013년 2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원 △교수=김은희(중어중문학과), 강경희(정치외교학과), 강석규(경영



26일 오전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변명섭(영문), 이기석(영문), 김승환(일문) 교수가 30년 근속 교직원 공로패를 수상하고 있다.

학과), 고윤희(수학교육과), 김민영(생명공학부), 양성기(토목공학과), 이윤경(식품영양학과), 김홍수(통신공학과), 현명택(기계공학과), 장승희(초등교육과), 지영훈(수의학과), 김민영(간호학과), 오창윤(산업디자인학부), 김상찬(법학과), 유은숙(의학과), 장원영(의학과), 허상택(의학과) △강사=현은주(중어중문학과), 이금란(수학과), 김석훈(체육학부)

▲산학협력 우수교수=이광만(전 자공학과) 교수

▲모범 초·중등 교원 △교사=정수명(교육대학부설초), 홍경미(사범대학부설중학교), 강재철(사범대학부설고교)

▲2014년 모범 직원 교육부장관표

창 △직원=이은영(법학전문대학원), 고성기(학생복지과), 고이현(재정과), 윤상돈(시설과), 김신영(교육대학), 오상태(해양과학대학 부설 실습선)

▲2014년 우수 학생=장상우(국어국문학과 3), 만드여웅게를(정치외교학과 4), 김수지(관광경영학과 4), 안세현(사회교육과 4), 이정훈(생명공학부 3), 허한샘(해양산업경영학과 4), 고예은(전산통계학과 4), 김현욱(통신공학과 4), 하수연(초등교육학과 2), 강경훈(수의학과 4), 김주미(간호학과 4), 문진현(미술학부 3), 이정운(정치외교학과 4), 송은혜(정치외교학과 4)

백승규 기자

## “분노하고 반성한다” 제주교수네트워크 65명 시국선언

###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 비판

### 근본적 변화·교육 정상화 당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주대 교수를 포함한 제주지역 대학교수 6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공동대표 윤용택·김민호·심규호 정민)는 23일 ‘분노하고 반성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대책방안을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정상

화의 계기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어른들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숨져간 어린 학생들에게 동

시대의 교육을 담당한 우리들은 오히려 사죄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불의와 거짓에 적극적으로 맞서 진실과 정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 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야만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법

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면서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고 있으며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해제시키는 규제 완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비탄에 빠진 순간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만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언론통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강수빈 기자

## ‘4·3과 동아시아 평화,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대회

### 30일 탐라문화연구소 주최

### 한·미·일 등 외국학자 참가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4·3과 동아시아 평화, 식민주의와 문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교류회관과 인문대학 1호관 3층 문화원형체험관에서 30일 오전 10시 김동운 소장의 개회사, 허항진 총장의 환영사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학술대회에서는 ‘식민주의와 4·3문학’, ‘식민주의와 동아시아문학’, ‘식민주의와 민주문학’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제주4·3 제66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문학의 양상에 주목하며 제주4·3문학에 대한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지구촌의 평화를 모색하려는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제주4·3의 국제화를 극대화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5개국 11개 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제주4·3유적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부찬우 기자

### 박물관 개교 62주년 특별전

### ‘제주의 무구’ 7월31일까지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개교 62주년을 기념하여 신과의 만남 ‘제주의 무구(巫具)’ 특별전을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1층 중앙홀과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유물은 무신도, 맹두, 무복과 사진 자료 등 120여 점들이 전시된다. 문의=제주대학교 박물관(☎754-2243) 유주연 기자

## 제주대 ‘2014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수상

### 종합대학 부문 최고 브랜드 선정

### 브랜드 전략·비전 등 높은 점수

제주대학교가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대는 브랜드의 전략 및 비전, 브랜드 이미지 및 디자인 독창성, 유사브랜드 대비 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개교 62주년을 맞아 우리대학은 새로운 대학 발전 비전인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JNU(Jeju National University)’을 내세웠다. 제주대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도약(Jump)·혁신(New)·통합(Unity)에 대한 염원·열정·의지를 반영한 브랜드 전략이다.

또 소비자만족도, 경영방침, 최고경영자의 소신 및 의도, 품질과 전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대학으로 선정됐다.

허항진 총장은 “이번 수상은 제주대 브랜드의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더욱 정진해 제주대가 전국 상위권 대학, 아시아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기대가치 수준을 충

족시키고 고객감동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각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민선 기자

### 장애인의 날 행사 열려

### 장애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총학생회(회장 고평표 경영학과 4)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공동 주최한 장애인의 날 행사가 21일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설문조사, 시·지각 협응, 휠체어 등 장애인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과 더불어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송문환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놀랐다”며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 한국승마과학회 발기인대회

### 강민수 교수 발기인 대표 선출

제주대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소장 강민수 생명공학부 교수)는 20일 생명자원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한국승마과학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승마와 관련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민수 교수를 발기인 대표로 선출했다.

강민수 교수는 “승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인프라 육성에 그칠 게 아니라 학술탐구를 위해 학회를 설립했다”면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승마과학회는 승마산업 관련 전 분야의 학술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승마과학회는 승마산업에 관한 연구사업, 세미나, 기술강습회, 국제학술교류 등을 추진한다. 전지민 기자

# 2014학년도 제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 1. 초빙분야 및 인원

| 대학(원)   | 학과(부)      | 채용분야        | 인원 | 비고 |
|---------|------------|-------------|----|----|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국어음운론       | 1  |    |
|         | 철학과        | 사회철학        | 1  |    |
| 경상대학    | 회계학과       | 관리회계        | 1  |    |
|         | 무역학과       | 무역운송론       | 1  |    |
| 해양과학대학  | 지구해양학과     | 해양순환모델      | 1  |    |
| 자연과학대학  | 화학·코스메틱스학부 | 화장품학        | 1  |    |
|         | 생활환경복지학부   | 아동학         | 1  |    |
| 공과대학    | 에너지공학과     | 핵공학         | 1  |    |
| 대학원     | 풍력공학부      |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 1  |    |
| 의학전문대학원 | 의학과        | 핵의학         | 1  |    |
| 합계      |            | 10분야        | 10 |    |

####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통 지원 자격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 영어강의 가능자(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국어음운론 분야는 제외), 공개발표 시 참조

#### 나. 분야별 지원 자격

1) 국어음운론, 사회철학, 관리회계, 아동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2) 무역운송론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역상부문 강의 가능한 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해양순환모델, 화장품학, 핵공학, 대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4) 핵의학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1. 6.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3. 임용조건 등

2014. 9. 1.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 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국어음운론 분야는 제외)

#### 4.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교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함.

#### 5. 제출서류

##### 가. 채용분야 공통

-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불임서식) 1부.
-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물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불임서식).
-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물 각 1부.
  - ※ 논문은 게재일자, 권(호), 게재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핵의학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지도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임의 경력증명서 원본 중 1부.

##### 2)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 6. 지원서(서류포함)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5. 27.(화) ∼ 5. 30.(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지원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 서류의 작성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물(공동)발표자 목록은 교수초빙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은 불임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신규채용 전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

라. 경력(제직) 증명서는 교수초빙지원서에 작성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바.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아.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자.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이라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차. 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064)754-2013∼5, Fax (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랍.

2014. 5. 1.

## 제주대학교 총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사 설

제주대학교에 대한 우리의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는 올해 개교 62주년을 맞았다. 제주대학교 구성원인 우리들은 제주대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외국이나 도외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1만2000여명), 단과대학 수(12), 대학원 수(9), 학과 및 전공 수(77), 교원 수(800여명), 직원 수(400여명), 외국인 학생 수(600여명) 등이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1952년 4개 학과로 시작한 제주대학교는 62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최근에도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누군가 우리 대학의 1년 등록금(378만원, 전국 최저수준), 1인당 장학금(등록금 대비 57.6%), 작년 취업률(52.8%, 국립거점대학 2위, 전제국립대학 6위)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우리 대학의 최근 자랑거리에 대해 묻는다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율 전국 1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전국 최우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 최우수, 글로벌 교원양성사업에 선정(전국 3개 대학), 전국 최초 수의학교육인증 획득,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2019년까지 7년 동안 국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6년 연속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친구와 연인에 대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옆집 할머니가 70이 넘는 나

이에 초등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할머니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존경스러기까지 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하게 되며, 사랑하게 된다. 제주대학교에 대한 사랑 또한 우리 대학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 때 더욱 커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언제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여기 나온 숫자만이라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메모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나 신문에 올라오는 최근 학교 소식을 꼭 챙겨서 보자. 대학 본부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우리 대학의 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매월 발표되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위상, 학교 행사, MOU 체결 소식들을 단과대학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학교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2월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기본 좋은 학교 소식들은 외부인은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대학의 역동성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친구와 연인에 대한 사랑, 옆집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그러하듯이, 제주대학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주대학교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나 ‘사후약방문’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다 큰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땀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해방 이후 단기간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이라 하기에는 학생과 아픔이 너무 크다. 일상생활의 안전 의식은 아직도 후순위의 고려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안전은 어떠한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캠퍼스인가? 이미 대학본부에서 그린캠퍼스 사업을 시작하여 캠퍼스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안전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해도 문제다. 캠퍼스의 문제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안전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최근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학내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을 선호함으로써 인해 학내의 도로는 차량으로 넘치고 있다. 주차장 이외의 이면도로에도 주차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차량끼리의 사고도 증

가하고 있다. 학내 진입 차량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습실의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모태대학에서 발생했던 실험실 폭발 사고는 이의 대표적인 보기였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으로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외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보수도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몇 년 전 사범대 건물 브릿지의 일부 추락사고는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열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는 언제든지 가능한 사고이며 야간에 캠퍼스의 사각지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 ‘보여주기식’의 행정보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차근차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직원, 학생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스톱 시설 도우미’ 이대로 스톱?

보수 필요한 시설, 옥외시설 점점 이후에도 방치

시설과(과장 김재학)의 대학 시설물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히 고치겠다며 시작한 ‘원스톱(One-Stop) 시설 도우미’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불편사항을 거듭 접수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설 관리에 손을 쓰지 않고 있어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상대학의 한 학생은 한달 전 사슴상 근처 옴팡밭 주변 벤치가 훼손돼 있는 것을 보고 원스톱 시설 도우미에 시설물 보수 신청금을 올렸다. 이에 관할 부서인 시설과는 당시 “문의한 시설은 총무과 담당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이관 조치했다”는 답변

을 냈었다. 하지만 이곳 시설물 보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학생은 얼마 전 다시 원스톱 시설 도우미에 시설물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옴팡밭 주변 보수가 필요한 벤치는 총 4개에 이른다. 이 벤치들은 못이 빠져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벤치가 고장난 상태로 있어 못에 학생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시설물 보수를 두고 해당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원스톱 시설 도우미’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학내 시설물 고장이나 파손 등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과 지연 사유를 알려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다.

표정철 총무과 실무관은 “원스톱 시설 도우미는 담당자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설은 총무과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 예산이 한정돼 있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유주연 기자

강은희 진영마트 대표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강은희 진영마트 대표가 지난 21일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기금은 인제양성관 건립과 학생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강 대표는 “모교에서 받은 많은 도움들을 감사히 생각해 배필로 했다”며 “훗날 학생들도 성공해 후배들을 돕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제주대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김하윤 기자

현재용 한라산 대표

1100만원 연구·장학금 지원

현재용 한라산 대표이사는 26일 열린 개교 62주년 기념식에서 2014년도 우수 교수로 선정된 현정석(경영정보학과), 한남익(초등교육과) 교수에 각 500만원의 연구기금 증서를 전달했다. 또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소상재(수예과) 1)씨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라산은 ‘한라산 기금’을 조성해 지난 2007년부터 매해 개교기념식에서 우수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서윤 기자

GTEP 해외바이어 발굴활동

13일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단장 이용안 무역학과 교수)이 지난 13일부터 3일간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 2014)에 참가해 해외 유망바이어 발굴 활동을 펼쳤다.

사업단은 협력업체인 (주)제키스·(주)제이크리에이션·BK바이오 등 도내 기업 3곳과 함께 참여했다.

GTEP요원 6명과 도내협력업체들은 이날 해외바이어들과 해당제품의 경쟁력, 그들이 원하는 내수시장의 현 상황, 해외시장으로 진출했을 때의 가격 경쟁력, 공급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했다. GTEP요원들은 박람회 종료 후에 협력업체의 가격회상 상담 등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김해건 기자

22일 국제교류회관서

첨단기술연구소(소장 서일교 건축공학전공 교수)가 주관한 ‘제4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반도체 주포럼)’이 22일부터 3일간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 미래 생활’을 주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비 및 재료개발 현황과 미래기술을 논의했다.

포럼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의 리더들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의 ‘미래 혁신과 미래사회’를 시작으로 토시오 마루야마 일본반도체장비협회 회장이 ‘반도체 제조장비 비즈니스-현주소와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 김경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의 ‘한국 반도체 산업 제도와 전략’과 윤의준 산업통상자원부 MD의 ‘한국 의 핵심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략과 지원’에서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제주지역산업 육성 성과 및 계획’과 이희국 LG 기술협의회 사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서 김은지씨 대상

백경민(정치외교학과 1)씨 우수상

신문방송사 영자신문사(편집국장 우효승 관광경영학과 3)가 주최한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22일 오후 4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학교-교내 축제’, ‘교내 흡연’, ‘학교 체벌’ 세 가지 주제를 무작위로 추첨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김은지(영어영문학과 4)씨가 대상을, 백경민(정치외교학과 1)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강명훈(초등영어교육 2), 장재성(해양생명과학과 1)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22일 열린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김은지(영어영문학과 4)씨가 대상, 백경민(정치외교학과 1)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50만원, 우수상에는 30만원, 장려상에는 10만원이 전달됐다.

대상을 받은 김은지씨는 “작년에 도 참가했지만 수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제별로 생각과 연습을 많이 한 결과 대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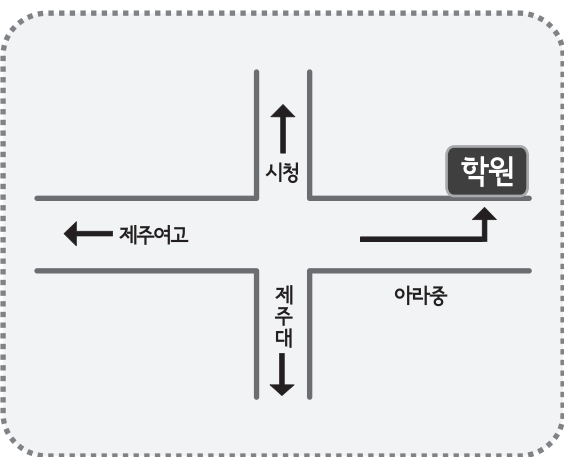
아직 실감이 안난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작업예비군연대 공고2014-1

2014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2014년도 예비군훈련(향방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4. 04. 21

제주대학교총장

1. 훈련기간 : 2014. 6. 24(화)~7. 3(목)(토, 일요일 제외)
2. 장 소 : 제92해병대대 예비군훈련장(제주시)
3. 훈련대상 : 전역1~6년차 편성자 전원(계급구분 없음)
4. 교육훈련일자 및 학급편성

| 일자          | 대학별          | 학 과 별                                                       | 인원(명) | 계학인원(명) |
|-------------|--------------|-------------------------------------------------------------|-------|---------|
| 6.24<br>(화) | 해양과학<br>대학   | 전 학 과                                                       | 360   | 378     |
|             | 수학과<br>대학    | 수학과 / 수의예과                                                  | 18    |         |
| 6.25<br>(수) | 사범대학         | 전 학 과                                                       | 171   | 355     |
|             | 생명자원<br>과학대학 | 전 학 과                                                       | 184   |         |
| 6.26<br>(목) | 자연과학<br>대학   | 전 학 과                                                       | 254   | 363     |
|             | 사회과학<br>대학   | 행정학과 / 행정학과(아)                                              | 105   |         |
| 6.27<br>(금) | 공과대학<br>B    | 간호학과                                                        | 4     | 327     |
|             | 사회과학<br>대학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245   |         |
| 6.30<br>(월) | 공과대학<br>A    | 정치외교학과 / 언론홍보학과                                             | 82    | 365     |
|             | 자연과학<br>대학   |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기계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통신공학과 / 에너지공학과 | 391   |         |
| 7.01<br>(화) | 인문대학         | 전 학 과                                                       | 213   | 323     |
|             | 법정대학         | 전 학 과                                                       | 22    |         |
|             | 예술디자인<br>대학  | 전 학 과                                                       | 65    |         |
|             | 교육대학         | 전 학 과                                                       | 23    |         |

| 일자          | 대학별          | 학 과 별                                        | 인원(명) | 계학인원(명) |
|-------------|--------------|----------------------------------------------|-------|---------|
| 7.02<br>(수) | 경상대학<br>A    | 경영정보학과 / 무역학과 / 회계학과 / 회계학과(아)               | 218   | 398     |
|             | 대학원/<br>의과대학 | 전 대학원 / 교수 / 의과대학                            | 180   |         |
| 7.03<br>(목) | 경상대학<br>B    | 관광경영학과 / 경영학과 / 경제학과 / 관광개발학과(아) / 관광경영학과(아) | 335   | 335     |
|             | 총 계          |                                              |       | 2,844   |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소속대학 학부(과) 열람)

5. 유의사항  
가. 훈련은 소속대학별 훈련 해당일자에 제주시 연동 정실훈련장으로 참석 바랍니다. (불참자는 보충교육 참석. 단, 보충훈련 장소는 대정을 모슬포(91 해병대대)입니다)

나. 훈련 당일 09:00까지 시간임수 개별임수  
※ 지각자 처리 기준 : 30분 이내 1시간 추가, 30분 이후 임소불가

다. 종식 제공(도시락) 지침자는 종식비(6,000원) 지급 및 교통비(4,000원)지급  
※ 단체 도시락은 반입 할 수 없음(식중독 발생 우려)

라. 예비군복 착용(규정된 복장 착용)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필기구 반드시 지참.

바. 정당한 사유(실습)로 인하여 훈련연기 및 훈련일자 변경을 원하는 자는 중병서류를 지참하여 2014. 6. 13일(금)까지 예비군연대에서 연기 신청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구내754-2288~9)로 문의 바랍니다. 끝.



# 제주의 특성 살린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탐방 < 2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997년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제주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주국제자유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다.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해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김한국)가 설립됐다. JDC는 국가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JDC는 관광·교육·의료·첨단 등 개발사업의 핵심 및 전략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특별법 제261조)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JDC는 제주의 지역적·역사적·인문학적 특성과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제주지역과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만이 가진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해 홍콩·싱가포르와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 JDC의 역할이다.

2004년 3월 JDC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 이듬해 4월 JD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이어 2010년에는 현재 위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 10여 년간 JDC는 2005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007년 휴양형주거단지, 2009년 영어교육도시, 2012년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6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사업성과가 나면서 제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JDC는 핵심프로젝트 추진 외에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실행방안으로 JDC는 각종 지원사업 등 지역 밀착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사업은 ‘지역 정책 사업’과 ‘도민 국제화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지역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광서리, 서광동리, 보성리, 토평동 등 4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도내 재난 긴급 구호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을 위한 축제, 장애인 의지 보철 사업, 사회적 배려계층 자량 지원사업 등 기초 특성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DC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드림나눔 봉사단은 부서별로 사업 주제에 맞는 사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단 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비롯해 가파도 푸른숲가꾸기, IT봉사단, 도내 결혼가정 돕기, 자선도금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올해 7회를 맞이하는 글로벌 인턴십은 제주도 내 대학생들이 어학능력, 자신감, 성취감 등을 갖춰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도민국제화 사업의 하나로 JD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열정, 창의력, 외국어구사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JDC아카데미, 대학생 글로벌 인턴십, 초·중생 사랑나눔 영어캠프, 주니어 저널리스트 등이 운영되고 있다.

JDC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 초·중학생 사랑나눔 영어캠프, 기업탐방 등 다양한 분야로 제주대와 협력하고 있다.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정규 교과과 편성돼 이수 학생에게는 2학점이 부여된다. 국내의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학기별로 13개 강좌씩 매해 26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또 외국어교육원과 함께 초·중학생 대상으로 사랑나눔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동계 방학에는 학생생활관에 10박11일 동안 초등학생 100명을 모집해 운영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JDC와 제주대가 상호 공동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의적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고용연계를 위한 현장실습, 취업알선, 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채용 프로그램 운영에도 협력한다. 제주대 가족회사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입주기업과 산학공동연구 진행, 연구실과 공용장비 시설 활용도 협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창의인재 양성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11월 열린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포럼’은 제주대 아라캠퍼스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잇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유치를 모색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도내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웅암해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컨트론타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는 다음·모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스마트빌딩과 엘리트빌딩에는 7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위).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를 목표로 NLCS Jeju, KIS Jeju, Branksome Hall Asia 등의 학교를 유치했다.

뉴엘·이스트소프트·온코퍼레이션 등 국내 우수기업들이 입주했다. 이외에도 JDC의 엘리트빌딩과 스마트빌딩에 7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총기업의 수는 105개에 이른다. IT·BT·R&D 기업들만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23개 입주기업에 전부 분양된 상태다. 앞으로 잔여 용지에 지원시설과 주택, 학교 등이 들어서면 상주 인원이 1500여명으로 늘어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경태 기자

인터뷰 이성호 JDC 인사실장

##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 선호”

▶과거 대학생들은 어땠나.

“재학시절에는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생운동이 활발하고 학교 내에서 시위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군대와 경찰이 학교에 주둔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그 때의 대학생들은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책도 많이 읽고 신문물을 구독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책과 신문으로부터 멀어졌다. 또 영어나 스펠링과 같은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한다. 사회, 정치적인 이슈보다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옛날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JDC에서 바라는 인재상.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첨병역할을 하는 공기업이다. 또한 해외투자자 위주로 사업을 유치한다. 따라서 외국어는 기본 사항이며 투자와 관련된 지식과 법을 많이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JDC는 투자자를 상대하고 고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한다. 조리있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잘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도 습득해야 한다. 보고서나 기획서를 제출할때 핵심을 정확히 요약해 간결하게 브리핑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JDC가 바라는 인재의 첫번째 조건은 창의성이다.”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가.

“재주출신도 많지만 이번 신입사원 공채지원 현황을 보면 타지와 제주의 비율이 50대 50이었다. 실제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제주출신과 타지출신이 반반



이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수익창출사업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진행해 왔다. 핵심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개발사업이며 이 사업들

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예를 들면 해외기업 유치, 제주도 성장, 외국인 채용,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있다.

처음 서류를 받을 때 전공학과도 고려한다. 이공계열은 토목, 도시계획, 전기, 기계, 설계전공 등을 우위에 둔다. 인문·사회·상경계열은 법률, 회계, 외국어분야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에게 한 마디.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공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전국단위지만 JDC는 제주도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공기업이다. 사업의 결실을 제주도가 수해하니 절대적으로 제주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입사했으면 한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길 바란다. 영어공부와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는 삶의 지혜는 어떤 스펠과도 견줄 수 없다. 취업을 넘어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독서에 있다.

제주를 전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고 싶다. 제주도에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JDC의 문을 두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라.”

백승규 기자



## 젊은이여, 자신감으로 도전하자

자기신뢰와 가치, 그리고 창의성

구 범 준 / CBS PD

성공적인 리더십은 What(무엇)→How(어떻게)→Why(왜)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Why는 곧 가치를 말하는데, 사람이 먼저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온다. 자동차광고를 보면 예전에는 자동차의 훌륭한 기능과 스펙(What)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광고는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는 식의 가치(Why)를 강조한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컴퓨터라는 식이 아니라 슬로건으로 ‘Think Different’라고 말한다.

◇패배의식 떨쳐내야 할 때

사람에게 자신감(Confidence)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화난 원숭이 실험이 있다. 실험자가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있는 우리의 천장에 바나나를 줄로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 줄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찬 물을 뿌려댔다. 원숭이들은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물세례를 받고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러자 줄을 타고 오르려는 원숭이들은 줄이 들었고 마침내 어느 원숭이도 줄을 타지 않게 됐다. 실험자는 이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새로운 원숭이를 무리에 접어넣었다. 당연히 바나나를 먹기 위해 줄에 올랐으나 우리 안에 있던 고집원숭이가 제지했다. 그로 인해서 당당히 찬물 세례를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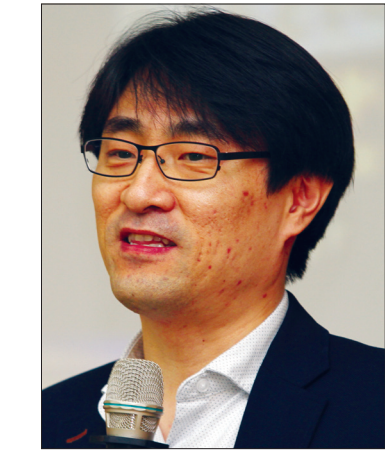
실험자는 그럴 때마다 원숭이들을 한 마리의 표 코에다가 마침내 직접 찬물 세례를 받은 원숭이를 한 마리로 남지 않게 됐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일어났다. 직접 찬물 세례를 받은 경험을 가진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면서 바나나는 ‘따먹으면 안 되는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 실험은 원래 조직에 만성화된 부정적인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하는 데

표적인 사례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해봤는데 안 돼’ 또는 ‘해봐야 소용 없어’라고 말하는 타성에 젖은 조직문화가 전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말해준다.

대학생활도 마찬가지다. 가령 선배들이 ‘야야 하지만, 안 돼’라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 무기력이 세대를 거쳐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무기력의 다른 이름은 포기, 좌절, 무관심이다. 물폭탄을 맞는다고 말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감을 갖고 사회인이 되면 어떤 프로젝트의 실패나 성공을 떠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과 일관성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존재한다.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상상한 것보다 짧은 순간에 이뤄지기도 한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안목을 깨우치게 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다. 2011년 3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에 대한 구상을 사내에서 밝혔다.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라 HD급 고화질 영상으로 웹포바일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동료들은 안 된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진 원숭이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이리저리 발로 뛰어다니는 끝에 세바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적인 일관성(Integrity)을 이끄는 힘이 됐다. 사람들이 생소해하던 세바시는 모든 강연자들이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가 됐다. 하지만 그 유명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다. 수형자, 자살을 시도했던 고등학생,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오는 외국인들, 또 한 가지 선물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깨달음이었다.



“한 박자 빠른 삶이란, 생각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인데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바로 실행해야 한다”

시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박자 빠른 삶을 사는 거다. 한 박자 빠른 삶이란 생각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우물쭈물하는 데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할까 말까 고민될 때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내 안에 있는 것도, 당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창의성은 ‘우리’ 사이에서 나온다. 창의적인 시도는 늘 누군가의 만남으로 큰 가능성을 만난다. 세바시 플랫폼이 지향하는 것은 연결이다. 관심의 주체들이 연결돼서 서로에게 좋은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다. 세바시를 하면서 자주 큰 수혜를 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앞으로 세바시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학습콘텐츠이자 인생자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세바시 강연을 보고 사람들의 삶의 모형을 찾거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삶의 재료가 됐으면 한다.

정용복 팀장

너와 내가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

이 지 연 / 전 KBS 아나운서

의사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생각한 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슬우와 두루미와 여우에서 두루미는 진심으로 여우를 대접하기 위해 호리병에 맞있는 음식을 담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호의는 묻히고 반감만 얻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내 뜻을 어떻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좋은 스피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중요하다.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진다. 실수할까봐, 잘못 말할까봐 말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도 연결된다. 다음으로 감정관리와 차이를 인정하는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다. 일단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신감으로 스피치의 날개를 달자

스피치를 잘하려면 평소에도 강하게 시작해야 한다(Strong Start). 강한 음성, 강한 자신감의 자세, 강한 내용은 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다. 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발표를 할 때에도, 취업 인터뷰를 볼 때에도 항상 상대방을 의식해야 한다. 스피치 내용은 도입,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 또는 기승전결의 순서로 전개된다. 도입 없이 본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청중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 주제에 맞춰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한다. 스피치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가 ‘상대방 수준의 언어를 쓴다’는 것이다. 말은 듣거나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말을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하고 쉬운 면서도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성공적인 스피치는 논리적이면서 나온다. 또 동일한 메시지의 반복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스피치를 할 때 청중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연사가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오바마처럼 어떤 자리에서든지 순발력 있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알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말할 때 얼굴과 목소리, 몸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보내고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의 95% 정도를 받아들인다. 화자의 모든 행동이 바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심지어 침묵조차 언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쁘다고, 발성이 좋지 않다고, 호감가는 외모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마음을 여는 소통 노하우를 가지려면

자신감도 중요하고,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내 모습을 잘 가꾸고 있어야 상대방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미지가 있다.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같은 편안한 이미지, 잘못하면 크게 혼낼 것 같은 날카로운 이미지, 어려움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여유로운 이미지, 별일 아닌데 짜증을 잘 내는 화도 잘 낼 것 같은 화난 이미지들을 수 있다. 이미지들은 보통 시각적인 요소에서 크게 작용을 하며, 그 다음으로 말 몇마디 나뉘고 함께 식사를 해보고, 팀을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잘 지워지지 힘든 이미지들이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평소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외적인 요소로 가지 판단을 하는 게 ‘가치관’이다. 즉 사람이나 물건에 처음 지각된 가치를 바탕으로 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입견이 생길만큼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말을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확하고 쉬운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에 영향을 받지만 몇마디 나눈 후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성격과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말이 빠르면 성격이 급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목소리가 크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목소리가 작고 안으로 기여 들어가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이미지를 판단해 버린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성격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처음은 무겁게 느껴지는 음성이고, 중음은 부드럽음이 느껴지는 음성, 고음은 쾌활함이 느껴지는 음성이다. 학교에서의 발표나 면접 상황에 대비하여 더욱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호감 가는 목소리를 훈련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늘 소심하고 자기표현에 서툴었던 사람이 훈련을 통해 크고 역동적인 목소리로 바뀌면 그에 걸맞은 내면세계, 표정, 제스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정용복 팀장



# 홀로코스트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성숙한 독일사회

학술기고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소설 『더 리더』



조 현 진  
독일학과 교수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퇴행적 행보는 종종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작가 베른하르트 솔링크(1944~)의 소설 『더 리더』(1995)를 소개하고자 한다. 베른하르트 솔링크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일약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출판된 지 5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이미 쿤터 그라스의 『양철북』(1959) 및 파트릭 쥐스킨트의 『향수』(1985)와 더불어 2차대전 이후 현대 독일 작가의 작품 중 가장 성공한 소설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2008년 영화로 소개되어 호평을 받으면서 소설이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10년 현재 40여 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소설의 주인공 미하엘 베르크는 현재 50세의 법제사 연구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사법관 시보 기간이 끝나자 법제사 연구학자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부인과 이혼하였으며, 이후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하엘이 (법의) 역사를 연구하게 된 이유와 성공로 살고 있는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 이 소설에 대한 바른 독법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현재를 어는 첫 단추로 얼마치이던 해에 만났던 서른여섯 살의 첫사랑 한나 슈미츠를 선택한다. 어린 시절 21세 연상의 전차차장을 사랑한 이후 그녀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펼쳐져왔는지 회고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 ◇소설 『더 리더』

15세 때인 1958년 10월 어느 날 황달에 걸린 미하엘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도를 한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나는 미하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손과 얼굴을 씻겨주고 집까지 데려다준다. 약 3개월 후 미하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는 외출 할 일이 있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현관에 서서 기다리는 중 부엌에서 웃을 갈아입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스타킹을 신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눈은 뿔 수 없었지만, 그것은 성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와 몸놀림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그녀의 태도와 몸놀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의 몸의 안쪽으로 되돌아가, 그녀의 몸을 몸 자체에게 그리고 머리가 내리는 어떤 명령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나름의 조용한 리듬에 내맡긴 채 외부 세계를 잊은 듯이 보였다. 바로 이와 같은 외부세계에 대한 망각이 그녀가 스타킹을 신을 때의 모든 태도와 몸놀림에도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스타킹을 신을 때의 그녀의 태도는 둔중하지 않고 오히려 유려하게 우아하고 유혹적이었다. 그것은 젓가슴과 엉덩이, 다리에의 유혹이 아니라 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바깥세상을 잊으라는 요구였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일종의 의식 같이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약간 같이 누워 있기'이다. 이렇게 사랑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사라진다. 그런데 미하엘은 한나가 말없이 사라진 것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또 다른 한편 죄책감과는 별도로 미하엘에게 한나와의 사랑은 깊은 상처만 남긴다.

미하엘은 한나와 사귀면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굴욕감을 느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굴욕을 감수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상실의 아픔을 가져올 만큼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나와의 짧은 만남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러다 약 7년 후인 1966년 대학에 진학한 미하엘은 홀로코스트 관련 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참석한 나치 전범 재판장에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우연히 다시 만난다. 1922년에 태어난 한나는 베를린에 있는 지멘스 회사에서 일하다 1943년 가을에 나치 친위대에 들어갔다. 1944년 초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하고 1945년 겨울에는 크라카우 구교의 작은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그녀는 매달 60명씩 선별하여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냈으며, 그 후 수용소가 폐쇄되어 수감인들을 서부로 이동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불에 타 죽게 내버려두는 등 반인륜적 만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만행의 동기를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문맹이었다. 지멘스 회사에서 근무조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문맹이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친위대 경비원으로 자원입대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나치에 부역한 죄목으로 한나는 종신형을 선고 받는다.

한나는 분명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행위



나치 전범 재판장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나(출처=네이버 블로그).

에 가담한 범죄자이다. 따라서 미하엘 역시 한나를 비난하고 부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다. 우선 그녀의 행동 모두가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자신을 돌봐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경비원이 된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맹이라는 자신의 지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뿐이었다. 수치심 때문에 한 행동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문제까지 결부된다. 자신은 범죄자를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 역시 공범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미하엘의 이중구속의 원인 - 한나

이렇게 하여 미하엘에게 한나는 이중구속의 원인이 된다. 즉 한편으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한나를 단죄해야 할 당위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적인 동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쉽게 단죄할 수 없는 고뇌 내지는 범죄자를 사랑했다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중배반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그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녀를 외면하고 배반하는 것이므로 이해와 유죄판결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하엘은 이해와 유죄판결 사이의 이중구속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중구속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중구속 속에 처한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도에 빠져 마비, 분노, 불안증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정신분열증'으로 발전된다.

미하엘의 경우 정신분열증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지만 결혼 6년 만에 부인과 헤어지고, 이혼한 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나지만 그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의 일상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는 이중구속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한나가 어디를 가나 그를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도 한나와 비교를 하고, 사법관 시보 시절 강제수용소 세미나를 주관하던 교수의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 전차에 오르자 저절로 한나와의 추억이 떠오른다.

미하엘은 한나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회피 내지는 도피를 택한다. 그가 사법관 시보를 끝내고 법제사 연구학자의 길을 택한 것도 사실은 '젓빛과 삭막함과 황량함이 전부'였던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또 18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나에게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한나가 출소 직전 교도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그녀의 자살 또한 미하엘을 해방시켜주지 못한다. 회피나 죽음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사망한 지 10년 후인 1994년 미하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한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물론 그 자신도 글쓰기를 통해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43년에 태어난 미하엘은 홀로코스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세대에 속한다. 그러나 한나와 5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짧은 만남은 미하엘의 결혼생활이나 다른 여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앞으로도 계속 한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펼쳐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미하엘의 이런 태도, 그것은 바로 현재의 독일사회가 이전 세대가 저지른 만행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또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이런 성숙된 사회 분위기 덕분에 독일은 주변 국가들의 동의하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 권하고 싶은 책

# 잔잔한 사유와 생활 속의 철학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 담아내

##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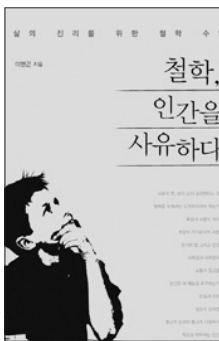
이명곤 | 세창출판사 | 2만1000원

이 책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철학교양서적’이다. 저자가 10여년 동안 책의 내용과 유사한 교양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요긴하고 적절한 철학 교양서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실재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독립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유한다는 것’, ‘행복과 도덕적인 삶의 관계’, ‘사랑의 가치’, ‘정치와 법’, ‘사회성과 사회정의’, ‘예술의 가치’, ‘일상의 진리들’, ‘종교적인 삶의 의미’,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나름의 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철학교양서적으로서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다. 지혜란 지식과 다르다. 지식이 단순한 앎을 의미한다면 지혜는 잘 사는 것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앎이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의미 있는 삶, 보다 가치 있는 삶, 보다 정의로운 삶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너무나 짧은 시기에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가히 ‘경제 기적’을 낳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이러한 불균형적 경제발전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질문명의 지나친 강제로 인해 인간이 물질화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어 사회가 양분화 되고,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이 빈번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자살하며, 이혼율은 세계 상위를 달리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미래의 행복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젊은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과 도덕적 심성에 대한 희망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러한 희망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곤  
철학과 교수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이 책의 장점이란 ‘철학교양서’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단순한 수필식의 전개가 아니라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을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이야기 전개가 마치 소설을 읽듯 유기적인 짜임새로 흘러가고 있기에 쉽게 공감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글쓰기의 형식은 토론과 논증 형식의 사유가 부족한 20대들에게 설득력 있는 글쓰기나 말하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다양한 철학자, 문호, 예술가, 시인, 정치가의 사유들을 답습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들의 명언들을 따로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적 도그마에 안착하지 않고, 가급적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에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생의 진실과 지혜를 묵상하면서 삶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의 지식이나 사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유들을 하나의 지평에 수렴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누구든지 필요한 것을 음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성숙하고 주체적이며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저자는 파리 유학 시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분야도 병행하여 수학하였는데 이 책에서 글과 조화되도록 저자가 직접 그린 많은 그림을 보는 기쁨도 함께 누리기를 권한다.

박경숙 언론홍보학과 교수

## 로컬뉴스

### ‘제주식’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위해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총 5개 기업·19개 일자리 창출사업이 신규 신청했으며, 이중 2개 기업·15개 일자리를 선정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한 2개 기업이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역량강화 컨설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은 총 94개 업체에 일자리 797개로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근무를 통해 자립과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중”이라며 “취약계층들을 제도적 장치로 도우는 방법도 있지만 최고의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 제주의 고유정서 담은

### 버스정류장 조성



시내버스 정류장이 제주만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정류장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말까지 '제주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전해지는 설촌유래와 지역문화, 문학, 시(詩)와 이미지 등의 주제를 비가림 버스정류소 총 36곳의 유리면에 부착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세가지로 진행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생활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문구를 제주어로 표현한 '웃음·공정 제주어 프로젝트'와 제주출신 시인들의 작품을 부착해 예술의 정취를 만끽하게 만든 '시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공간 프로젝트', 지역별로 마을의 설촌 유래와 역사를 알려주면서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 정보리, 유채꽃, 바다와 하늘 등을 표현한 '마을의 유래와 역사가 담긴 버스정류소' 등이다.

### 2014 유네스코 국제캠프

### 오는 7월 8일부터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계자연유산 보존활동 및 문화교류를 주제로 2014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를 제주 전역에서 개최한다.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1966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교류행사다. 올해는 80만년의 역사를 품은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제워크캠프는 해외참가자 15명과 한국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한다.

2014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워크캠프는 지역협력기관인 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서귀포 YWCA가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006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유엔대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세미나 개최와 국제워크캠프 및 제주한일워크캠프를 개최했으며 2007년, 2008년에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세계 각국의 워크캠프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한 2009~2013년까지 국제워크캠프를 유네스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 해녀반 28명 등 63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대학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총 1억2천만원을 투자해 지난 3월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대학교에 위탁 운영중에 있다. 또한 현재 해녀반 28명과 해양산업경영반 35명 등 모두 63명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을 통해 어촌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선진지 견학과 국외 산업시찰 등 제주 지역에 걸맞는 해양수산 교육훈련을 통해 최신의 수산정보 습득과 자질을 함양하여 지역의 전문 지도자로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최고수산업경영과정은 최신 수산기술 연수와 경영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및 제주 어촌지역에 활력 등 해양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부터 사업비 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녀반 185명, 해양산업경영반 225명 등 4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일선 현장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50~60명 정도의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월호 피해입은 도민에

###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실종자가족 등에게 신속한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희생자중 다문화 유가족 한운지의 친정아버지 판만차이와 여동생 판록한에 대해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강승부) 등이 14일 수원시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양복 항공료 260만원을 비롯한 제제비 등 6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외에도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로 지원 관련 해서는 장안구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자기간 만료 등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직접 조치했다.

또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사고로 보호자 공백이 생긴 가정에 대해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돌봄, 노인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 등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원 또는 통일 치료중인 생존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장례식장 결정 및 예약, 시신운구, 유가족 이동, 장례식 유가족 지원 등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제주 4·3 장한 어버이상

### 4·3평화재단 주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은 24일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제주4·3 장한어버이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30명이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70대 11명, 80대 13명, 90대 7명으로, 최고령자는 남편이 희생당한 후 온갖 역경을 딛고 2남 1녀를 성실한 사회인으로 키운 김영옥(98세) 할머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은 △배우자를 여원 희생자나 유족 △소년·소년가장 △후유장애자 또는 그 배우자 △수형 생존자 또는 배우자 가운데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키거나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제주4·3 장한 어버이상'은 고난의 제주현대사를 몸으로 감내해야했던 4·3체험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시상했던 '장한어머니상'을 작년부터 '장한어버이상'으로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한편 2014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공모기간동안 응모한 3개 부문(시, 산문, 만화) 581편 중 심사를 거쳐 51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4·3의 고난을 극복해온 체험세대와 미래 교훈계승의 주역인 10대 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교감을 나눴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 위해 언어왜곡 바로 잡아야

기고 왜곡 날조된 일본식 말 쓰지 말자



최규일  
문학박사·명예교수

언어는 모든 학문과 문화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이다. 언어는 언론 표현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의식(意識)을 반영한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적에 유의하여 살펴야 한다. 언어 표현에서 해서는 안 될 말과, 뜻있는 말과 무의미한 말, 버려야 할 말과 살려야 할 말이 있다. 어떤 말이 바로고 틀리며, 적절하고 부적절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의 망언과 ‘평화헌법(平和憲法)’ 지지선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데, 갈수록 연일 언론에서는 언론인들이 쏟아내는 표현들이 거슬려 심사(心思)를 부추긴다.

우리말 우리글에 관한 한국어교육이 잘못된 건지, 과거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그렇게 배웠기에 이미 굳어진 인습(因習)에 젖어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그냥 지나쳐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참다못해 고언(苦言)을 말하려고 붓을 들었다.

사람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언어적 동물이다.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말과 글을 다루는, 특히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과 교수라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여기서는 말의 어법과 문장의 문법 오류(오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에서 언어 의식(意識) 면에서 본, 언어 사용과 표현의 적정(適正)을 말하고자 한다. 말과 글은 인간의 정신세계의 의식(意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말의 뜻을 모르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말은 사람과 나라를 단합하여 뭉치게 하고, 분열시키기도 한다. 국론이 분열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역사를 왜곡, 은폐, 날조하기도 한다. 그만큼 말과 글은 무서운 힘을 갖는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 글 구절에서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不知言，無以知人也).” “말의 의미를 모르면 사람의 진의(眞意)를 알 수 없다.”는 언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제대로 통해야, 인간의 의식이 깨어 언론(言路)이 제대로 살아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일본의 전쟁 위협에 처해, 국가의 미래 존망을 점쳐야 할 기로에 놓였다. 북한은 노골적인 전쟁 협박을 하지만, 일본은 위장된 명분 쟁기의 전쟁 도

발을 노린다. 어찌 보면 양국의 전쟁 위협에서 노골적인 북한의 협박보다 겉으로 감춰진 일본의 전쟁 위협을 우리는 더 철저히 경계하여 경각심을 갖고 정신무장을 해야 할 때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이 실제 본심을 감추고 노리는 저의(蓄意)은, 말이 ‘평화헌법’ 이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제2의 군국주의 전쟁 도발을 꾀하려 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저의)를 간파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 태세를 갖추어 우리의 국방력과 국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중국과 결속하여 유엔(UN)에 탄원서를 내고 지원 요청을 하며, 세계우방에 일본 평화헌법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 아베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의 교활(狡獪)한 간언(間言)과 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아름답게 포장된 말은 믿을 수 없다(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노자(老子)의 ‘미언불신(美言不信)’의 뜻을 깊이 새기자.

##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 하루빨리 사라져야

### 한국언론 일본식 조어 따라쓰기가 더 큰 문제

언론인, 지식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선생님들이시여! 우리말과 글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지성인이 된다. 언어불감증(言語不感症)에서 파독 깨어나야 한다.

- (1) 한반도(韓半島), 한일합방(韓日合邦), 갑오경장(甲午更張), 개화기(開化期), 모국어(母國語), 8·15해방(解放), 6·25사변(事變), 부락(部落), 교포(僑胞), 교민(僑民), 이씨조선(李氏朝鮮)/이조(李朝), 신정(新正), 구정(舊正) 따위.

- (2) 해외(海外), 도모(圖謀), 사료(史料), 감안(勘案), 일환(一環), 재고(再考), 본고(本稿), 본지(本紙), 본교(本校), 본인(本人), 본(本) 건물은, 근하신년(謹賀新年) 따위.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1)의 말들은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하여 황국(皇國) 식민사관(植民史觀)으로 조선말살(抹殺)정책과 조선어말살정책을 자행(恣行)하면서 왜곡·은폐·날조하여 미화시켜 만든 일본식 용어이다. 일본 군국주의 예정시대 일본이 조선 땅을 식민 지배하려고 일본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일본이 ‘조선말살’ 정책과 ‘조선어말



일본은 일제시대에 ‘조선어말살’ 정책을 자행했다. 사진은 일제시대 당시 한 학교의 수업시간. 출처=국가보훈처.

살’ 정책을 자행하며, 우리 역사를 왜곡 날조 은폐시킨 용어들이다.

여기서 (1)의 말들은 특히 일본의 속셈-저의(底意)가 담긴 용어이다. 일본이 우리를 천시하거나 경멸하고 비하시킨 말이다.

각한 문제에 부닥치곤 한다. 더군다나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을 다루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념 규정이 달리 해석된다. 그 사건에 관련된 용어를 주제 측에서 그에 맞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한국지리학회, 고고학회가 쓰고 있는 지명(地名)이나 지표(地表)나 연표(年表)마저도 일본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들은 모두 지난날 일본인들 손에서 만들어진 왜곡, 날조, 은폐된 용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말과 글에는 사용하는 주체(主體)가 누구냐에 따라 그 말(용어)의 뜻과 해석이 달라진다. 앞에서 지적한 일본식 말들은 일본인 측에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한국인 측에서는 못마땅하다. 아니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곤란한 말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용어)들은 일본인이 우리 역사를 날조, 왜곡하며, 때로는 은폐하여 미화시킨 용어요, 때로는 비하하거나 깔아내려 폄하(貶下)한 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일본식의 말들은 그 속에 일본인들의 저의와 속셈이 깔린 표현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똑바로 인식하여 이런 잘못된 일본식 말을 버리거나 우리식 말로 똑바로 잡아야 한다.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절절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가 없다.’이다. 언어는 역사를 규정하며, 국가와 세계를 지배한다. 언어는 국력이다. 나라말이 어지러우면 사회가 무질서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져 위험해진다. 한마디로 역사왜곡은 언어왜곡에서 비롯되었다. 언어왜곡이 역사왜곡이요, 역사왜곡이 언어왜곡이다. 인류는 언어로 역사를 기록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라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문화 융성에 힘써야 한다.

»제가 제주대 ‘개교동い’랍니다

## “38년뒤 최고대학으로 탈바꿈하길”

이창준 체육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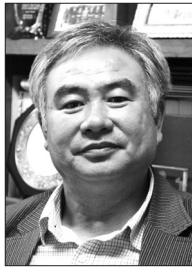
▶교수님에게 제주대란.

“제주도 출신인 나는 경희대학교를 74년에 졸업했다. 학군단 교관생활을 하다 대학원을 나와 1977년에 제주대학교 교수가 됐다. 당시에는 우리학교가 종합대학이 아니라 체육교육과가 없었다. 1982년이 돼서야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체육교육과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에 뜻을 뒤 어쩔 수 없이 육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다. 비록 모교는 아니지만 고향에 있고, 내 직장으로서 애교심을 가지고 우리학교에 열정을 바쳤다. 상금을 받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발전기금으로 꾸준히 기부를 했더니 2500여만원 정도 됐다.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도 많이 하니가 내 모교가 제주대학교냐고 묻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제주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제주대학교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제주대학교와 함께 걸어온 길.

“대학 입구에 있는 벚꽃나무가 겨우 내 무릎에 닿았는데 벌써 저렇게 컸다. 나무를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고 느낀다. 교수로 부임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또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으로 수영을 가곤 했다. 풋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던 학생들의 모습과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던 모습도 떠오른다. 그때는 학생들과 잘 어울리곤 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선지 내가 다가가기 가 조금 부담스럽다. 2년 후에 정들었던 제주대학교를 떠나는데 지금까지 해온

1952년 1월 1일생



것처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욱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62살 제주대, 이렇게 변했으면.

“올해 제주대

학교는 62주년을 맞이하고 나는 62살이 됐다. 그 중에서 제주대학교와 37년을 같이 했다. 아직도 우리대학은 부족한 점이 많다. 젊은 교수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원로 교수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강의실도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수들도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에도 중점을 뒀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38년 뒤 개교 100주년 때에는 세계 일류대학은 아니더라도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공부하라. 귀가 많도록 들었던 진부한 말이지만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학으로 부터 위촉장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1 등만을 기억하는 운동과는 다르게 공부하는 선두 그룹에 속하면 된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대학 간판보다 학과가 중요하다.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돼야한다. 늘 땀 흘려도 공부할 때는 열정과 진심을 다 바쳐 노력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보다 값질 것이다.”

백승규 기자



일러=박소연 기자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 TEL 754- 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 2014 6·4 지방선거 D-7/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지상 인터뷰

# 도지사 후보들 “대학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

6·4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2일 공식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과 정치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국립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반자 차원을 넘어 특별자치도의 철학을 같이하는 보다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로 승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의 현안 문제들을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적 정책과 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야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대신문〉은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정책선거 실천의 일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기호 1번 원희룡 후보, 기호 2번 신구범 후보 순으로 입장을 들어본다.

정용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7문 7답 질의 요지>

①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학이 지역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중대하다. 제주지역 최대의 지적 인프라인 제주대학교의 발전은 지역발전에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제주대학교의 지적 인프라를 연계 · 활용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②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산업기반 등 지역기반이 취약한 제주도의 경우 우수인력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제주도란 한정된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청년취업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을 기울여나갈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가?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청년들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화마인드 및 경험, 외국어능력 등이 함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이나 구상을 제시해 달라.

④ 전 세계 산업의 중심적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제주대학교와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바로 인접한 제주대학교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⑤ 제주의 국제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제주의 국제화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방안 등 어떠한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⑥ 국립대를 국가에서 분리해 예산은 물론, 조직 · 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국립대 법인화가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는 교육 시설 및 교육재원 등 여러 가지로 취약하지만 하다. 법인화가 실제 이뤄진다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의견은.

⑦ 선거 유세 활동 등 무척이나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서 당선 유무에 관계없이 제주도와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 기호 1번 원희룡 (새누리당)

# 오늘 보다 나은 대학생 위해 더욱 정진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 위해 수도권 기업 유치

취업 전문담당관제 신설해 실업률 줄여나갈 것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① 동북아의 중심, 세계를 품는 제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대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립대인 제주대학교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주대학생을 포함한 교수진의 역량은 훌륭하다고 본다. 다만 그 역량과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제주도, 대한민국, 세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의 지식과 역량을 그들의 것과 융합시켜 제주대의 발전, 제주도의 성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대 인근의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아울러 제주대학교의 지적 인프라를 국내외 우수기업,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②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구직자,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불일치, 즉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 도내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동시에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내 향토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취업과 관련한 전문담당관제를 마련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물론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갖추기 위한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기르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면서 제주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③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학생

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는 학생 개개인은 물론 대학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로 어학연수를 몇 명 보내고, 교환학생을 몇 명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국제화를 넘어 그 이수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언어는 물론 문화를 익히고 감각을 키워야 한다. 국제적 감성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국제적 인적교류와 함께 경제통상, 문화, 스포츠 등 대외교류의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제주대학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의 교육 혁신에도 힘을 보태겠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

④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첨단 지식산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구축돼 있다. 이곳에는 IT 관련 기업 57개, BT 관련 기업 30개 등 총 10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26개 기업은 다른 시 · 도에서 이전한 기업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온코퍼레이션, ㈜이스트소프트 제주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유망 기업을 계속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이에 발맞춰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제주대와외의 연계를 위해 기술중심형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고려중이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력을 위한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제주대를 포함한 도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를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에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이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연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⑤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학생들의 도내 유학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부적인 일이다. 다만 편식이 좋지 않듯 한 국가의 학생들로만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아를 넘어 미주, 구주, 아프리카 학생들이 제주대를 찾고 캠퍼스를 누빌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대학 자체적으로 세계 명문대학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저도 돕겠다. 전 세계를 뛰어 다니며 가교 역할을 하겠다. 세계를 품는 제주, 세계 대학을 아우르는 제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

⑥ 먼저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모두 나름의 논리와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각 대학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개별 대학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화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제주도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내에서 제주대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고 제주도 발전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지식 창출의 거점은 대학이고 대학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세심히 돌아보겠다.

⑦ 인생 1등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싶다. 여러분은 위대한 제주의 아들과 딸로서 향후 제주의 100년 대계를 책임져야 할 핵심 주체들이다. 물론 취업과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배우고 도전하며 혁신하는, '일신우일신'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인생 1등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저 역시 오늘 보다 나은 제주, 그리고 제주대학생들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 기호 2번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 청년들이 ‘탈제주’ 아닌 ‘친제주’ 되도록 최선

토종자본 4조원 육성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대학졸업자들에게 100% 지원으로 해외유학 기회

청년일자리 우선고용제도 도입위해 특별법 개정

① 지식정보화 시대, 융복합시대에 대학은 그 지역의 지식교류의 거점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 제주대학교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취업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제주사회 각 분야에서 학문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과 연구원간 연구교류 수준을 뛰어 넘어 창의성과 자발성에 기반을 두어 인문학을 비롯해 제주지역 지식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제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확장성이 있는 지식 데이터 뱅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칭 '제주지식ON'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제주지역 대학을 모두 포함시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적으로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② 토종자본 4조원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모두가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대학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 날 수 있도록 대학과 행정이 손을 잡을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토종자본 4조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이 토종자본으로 도민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면 제주청년의 일자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제주의 물과 바람 등 자연자산(自然資産)과 생태, 환경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공공분야에서 산업화를 확장해 나가겠다. 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와 추진, 풍력산업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③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 · 내외 제주출신 대학졸업자들에게 100% 지원을 통한 해외유학 기회를 약속한다. 제주도 출신 대학졸업자는 도의 대학졸업자까지 포함하면 년 6000여명이 된다. 지구촌 시대에 이들에게 해외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제주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제주도 출신 대학생 해외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 도지사, 교육감, 제주도내 대학교 총장, JDC 이사장, 학부도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100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류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을 섭외하겠다. 제주도지사와 JDC 이사장이 공동 출연하는 년 600억원 규모의 '해외

유학 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제주도 출신 대학졸업자들의 해외유학을 100%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으로 상향 개편하는 한편, 교육담당 정무부지사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정책을 총괄하겠다.

④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계획이 확대돼야 한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첨단과학단지를 비롯해 제주지역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청년 일자리 우선 고용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협의회-제주대학교-제주도 3자간 협약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행정력을 키우겠다.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첨단과기단지와 연관된 학과와 학부 등에 대해서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

⑤ 세계 100대 대학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주 대학생들의 해외 교류뿐만 아니라 각국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에 다양성이 확대되고 교류 거점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특히 과거 도지사 시절 제주를 비롯해 세계 섬들의 UN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변방의 섬이 아닌 미래와 소통하는 세계 섬 대학들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

⑥ 우선 법인화 정책이 과연 대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가 행 ·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제주대 구성원들의 논의와 다른 지역 국립대학간 연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국 국립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오히려 법인화 정책보다는 국립대학간 학점 인정 등 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대학의 서열화 체계를 재편하려는 대학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법인화 정책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가지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⑦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거점 국립대학만이 아닌 이제는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민들께 약속드렸듯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물론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제주의 청년들이 '탈제주(脫濟州)'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청정권이 그 원인을 발생시킨 측면이 크지만 대학생들의 시대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6·4지방선거에 제주 청년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주의 자존을 위해 잘못된 제주의 정치문화를 변화시켜주길 바란다. 제주의 인문자산이자 미래를 지켜나갈 대학생들이 '탈제주'가 아니라 친제주(親濟州)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야외박물관에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가 창업동아리 JEE (팀장 오소진 전자공학과 4)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후보 초청 특강

일시 2014. 05. 20(화) 14:00 ~ 16:00 장소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주최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직생활과 소통, 영화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 원희룡·신구범 후보 '정치와 언론' 특강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정치와 언론'을 주제로 '제주도지사 후보초청 특강'을 했다.

안현정 (언론홍보학과 3)씨의 진행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직생활과 소통, 영화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4개 강좌 수강생들은 이날 특강에서 후보들과 제주정치, 청년실업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강연요지.

정리=박소연 기자



◇기호 1번 원희룡(새누리당)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수가 가치이자 크기

짧은 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최고가 없다고 결정에 불참하면 최악의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최고가 없으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해 최악을 피해나가야 한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료가 행정수요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금의 제주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부터 예산과 인사, 정책 집행, 평가까지 민간 당사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제를 통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협치 또는 거버넌스라고 한다.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해 대립과 갈등에 먼저 손 내밀고 해결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연립정부의 철학을 제주도에 도입할 것이다. 지방 연립정부, 이런 정치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고 싶다.

대한민국과 제주도는 이제까지 양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포용성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제주도내 경제 주체들에게 기회와 경제활동의 주도권, 성과가 먼저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민이 주체가 돼 도내의 자본과 도민들을 우선하는 것이다. 포용성 성장을 통해 제주도의 수익이 외래 자본으로 유출되는 도민들의 격정과 불만을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창조적 성장'이다. 과거에는 토지라는 자원과 자본, 노동력의 양적인 성장을 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할 때이다. 질적인 성장에 중요한 것은 창조력이다. 이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결합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생태적 성장'이다. 현재 제주는 에너지는 물론 자본, 인구까지도 외부 의존도가 높다. 높은 외부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적 환경은 제주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 핵심요소는 '상생발전'이다. 제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외래기업과 토종기업, 이주민과 본토 제주도민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서로 다른 경제·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 제주의 가치, 인구, 네트워크 키워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제주가 변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세계가 서로 왕래하고 개방돼 있는 소통과 교역의 시대이다. 제주는 소통과 교육의 시대에서 '네트워크의 센터'가 될 수 있다. 제주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본토 제주도민과 이주민, 그리고 제주 출신의 외부인과의 관계를 제주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본토 제주도민은 인구가 60만명이다. 도외에 있는 제주도 출신은 50만명, 제주도민이 되고 싶어 하는 외지인은 30만명이라고 한다. 즉 제주도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150만명은 된다. 제주에 대해 감동하고, 자신의 결정적인 시간들을 제주에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곧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이자 크기라고 할 수 있다.

◇기호 2번 신구범(새정치민주연합)

굴종의 역사 극복하고 제주자존시대 열자

과거 도지사 시절 삼다수를 만들었다. 삼다수는 도민의 기업이다. 100% 제주의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 220억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가치를 생산해 냈다. 삼다수가 바로 제주의 잠재력이다.

언론과 정치, 이론적으로 두 집단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지 순탄하지 않았던 정치생활을 겪으면서 느꼈던 경험을 말해보겠다.

얼마전 도내 한 일간지의 1면 머릿기사 제목이 '제주도지사 후보들 말로만 정책선거'였다. 이 제목이 정치와 언론의 모든 관계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도 지역언론은 가십성 정치관련 기사만 머릿기사가 되고 정책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발표한 정책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정책토론에서 4조원 토종자본 육성, 도청 이전, 읍면동 기초자치 구현 등을 약속했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30여명의 스태프들과 14개 정책 개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이 현 언론과 정치의 관계이다. 도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알 권리는 언론을 통해 충족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은 돈과 힘에 상당히 훈련돼 있다. 언론들이 이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들이 현실을 바르게 알려야 한다. 언론이 할 말을 하고 행동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언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

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역언론은 제주도 사회를 책임질 도민들에게 제주의 역사, 현실, 미래 등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이는 언론과 정치 모두의 사명이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은 물론 정치가 시민들의 불만과 욕구, 정당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 답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주가 잊지 못하는 것 2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출륙금지령이다. 1629년부터 1834년까지 205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 물으로 나가지 못했다. 또 다른 상처는 침묵을 강요당한 4·3사건이다. 이렇게 제주의 조상들은 굴종의 역사를 DNA로 가지고 있다. 고려 숙종 10년, 고려에 굴종하기 전 '탐라의 역사'를 찾아야 한다. 이 역사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제주자존의 시대를 여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젊은이, 언론이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역할이 크다.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1%이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야만 정치가 모두의 일자리,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

굴종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제주의 자존을 찾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제주는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환경과 생태와 농업이 산업이 되는 시대이다. 산업화의 최대 조건을 제주가 가지고 있다. 삼다수는 제주에 양질의 지하수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구좌읍의 풍력발전은 제주의 바람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 모든 것이 제주의 잠재력이다. 어떻게 잠재력을 산업화하고 소득화시키며 사람들의 삶에 직접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도지사 후보에게 바란다

민주주의 실현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00여명의 생목숨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지만 ‘속 빈 강정’ 같은 선거 모습은 어느 때와 다를 바가 없다. 투표일이 지나고 당선자가 가려지면 자취를 감추어 버릴 ‘시장과 거리’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을 채우고 있다. 국민들은 모두 잘 안다. 그들이 지금은 국민의 공복처럼 허리를 굽실거리지만 며칠 후면 우리들 위에 군림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투표가 국민의 권리임을 잘 알고 있지만 종종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역겨워하기도 한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흔해 빠진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려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는 기존의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없느냐’는 핑계로 용인하는 ‘습관의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자신들만의 잇속을 챙기는 소위 지역유지들이 그들만의 ‘권력 나누기’와 ‘돈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 스스로가 그것을 용인하는 ‘습관의 정치’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러한 ‘습관의 정치’를 비판하고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이 되려 한다면 기대권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은 그러한 시도를 대의 정치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민주주의로 선언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반민주주의로 몰아붙이는 회한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견해가 공론의장에서 자유롭게 개진되고 토론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묘미는 그러한 공개적 토론 과정에서 대중의 동의를 얻는 견해는 합의의 토대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견해는 도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토론을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낙인찍고, 하나의 입장만을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로 강변하는 사람은 스스로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

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토양 위에서 토론과 합의에 의한 민주 정치의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습관의 정치’에 기대어 기대권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거는 ‘백화점 쇼핑’과 다르지 않다. 들어 있는 내용물 보다 포장에 더 중요하다. 정치란 투표소에서 끝나고 선거 다음 날부터 유권자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물은 처음부터 문제될 것이 없다. 유권자들은 표로 ‘구매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반품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책선거를 아무리 외쳐도 인물과 연출을 통한 습관의 정치를 벗어날까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 정책이란 선거 때만 되면 글썽글썽 나뒀다는 명망가들이 모여 앉아 만들어 내는 말뿐인 공약에 그치고 만다.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는 것은 지역유지들과 정치인들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개발정책일 뿐이다. 정책이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4년 내내 있어야 할 곳은 ‘거리와 시장’이어야 한다. 선거 기간 2주간이 아니라 임기 내내 거리와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사람들은 참여를 통해 민주정치의 주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은 4년을 훨씬 넘어서선 장기적인 전망과 기획 아래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자원을 주권자인 시민에게 배분하여 정치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기니와 우리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 중 그 누구도 그런 의도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지금의 암암한 정치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정치를 투표소를 넘어서 일상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 연구소에서는 김창인 실천철학을 기초로 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김창인 실천철학을 토대로한 창의성과 실천정신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글을 기대합니다.

다 음

- 주제 : 김창인 실천철학과 나의 인생,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
-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 50만원 (1명) - 우수상 : 30만원 (2명) - 장려상 : 20만원 (3명)
- 공모기간 : 2014년 5월 30일까지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0일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 앞에 게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 : \*응모자에게는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사무실에서 실천철학 책자 및 원고작성요령을 배부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제주대학교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문화교류관/박물관 1층)  
☎ 064-754-8278, HP 010-3699-3210

김창인실천철학연구소

세계를 향한 국내 유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4학년도 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 집 인 원 |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
|---------|-----------------------------------------------------------------------------------------------------------------------------------------------------------------------------------------------------------------|
| 모 집 학 과 |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3개 전공<br>•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 지 원 자 격 | • 전공구분 없음(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 원 서 접 수 | • 2014. 5. 27(화) 10:00 ~ 5. 30(금) 17:00<br>•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br>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
| 면 접 시 험 | • 면접고사: 2014. 6. 13(금) 10:00 ~                                                                                                                                                                                  |
| 특 전     |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br>•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유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지급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br>미국 : 미청, 일본 : 아사카가 공대 등)<br>•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 졸업 후 진로 | • 한국남부발전,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풍력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 선 발 방 법 |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소지자를 우선 선발함)                                                                                                                                                          |
| 문 의 처   |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br>•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br>•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u.ac.kr)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 아라캠퍼스를 알고 싶다

# 캠퍼스 통합 위해 아라동 이진후 82년 종합대학 승격

77년 아라동 30만평에 착공 후 79년 12월 캠퍼스 통합  
78년 첫 건물 완공... 86년 도서관·93년 학생회관 신축

1952년 도립 제주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제주대학교는 1962년 국립제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법학부와 이농학부가 설치되고 2년 후인 1964년에는 이농학부가 서귀포캠퍼스로 이전했다. 이농학부가 서귀포시로 옮긴 이유는 제주시에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 어려웠고, 갑골의 주산지인 서귀포가 농업 실습에 적지라는 점, 다음으로 서귀포 시민들이 이농학부 유치에 헌신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캠퍼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분리되자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1960년대 중반부터 인력과 시설의 낭비 등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통합 요구가 시작됐다.

캠퍼스 통합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데다 이농학부가 서귀포시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당시 이러한 여론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캠퍼스 분리에 따른 학사운영상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데다 분리 상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양 캠퍼스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학내에서 고조됐다. 당시 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 이설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대학도 큰 자극을 받았다.

◇용담캠퍼스에서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아라캠퍼스 이설 통합은 1973년 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시 김계용 학장이 캠퍼스 통합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문교부에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구체화됐다. 문교부에서는 며칠 후 제주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현지조사를 벌여 '제주대학이전 계획개요'를 작성했다. 제주대학의 통합 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두희)에서도 이를 기초로 이설통합 마스터플랜을 문교부에 제출하여 통합이설 최종 계획이 1973년 10월 5일 대통령 재가를 받음으로써 아라캠퍼스 이설사업은 본격 시작됐다. 이 계획에는 △기간은 1973부터 1977년까지 5개년으로 함 △교육에 필요한 기본 시설은 제1단계 기간인 1975년으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총 13억7331만2000원(국고 9억5761만2000원, 차관 4억1570만원)으로 함 △이설통합 캠퍼스는 제주시 아라동 도립목장 북쪽의 부지면적 총 30만5715평으로 함 △통합 후의 대학 기능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적응하는 전문산업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75년 캠퍼스 통합이설 사업을 위한 아

라동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1978년 통합이설 사업비로 114억원이 책정됐다. 1977년 처음 착공한 농수산 학부 B동 및 C동 공사와 교육학부의 1차 공사가 1978년 2월 마침내 준공됐다. 1978년에는 농수산학부 A동과 교육학부 2차 공사가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교양학부도 착공됐다. 이듬해인 1979년에는 정부예산 33억1800만원이 반영되어 본관 착공과 지역개발학부, 체육관, 도서관 등의 건물 공사가 시작됐다.

◇아라캠퍼스 시대 개막  
1979년 8월 31일 교수아파트 1동이 준공되어 30세대가 입주했다. 그 해 12월 15일 서귀포 캠퍼스에 있던 농학부와 수산학부가 아라동 캠퍼스로 역사적인 이전을 하게 됐다. 이는 제주대학이 국립으로 이관되면서 캠퍼스가 분리되어 1964년 서귀포 캠퍼스가 생긴 이래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캠퍼스 통합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설 통합 검토 지시를 내린 지 8년만이며 공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통합을 위한 기초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총 52억7600만원에 이르렀다. 당초 계획으로는 통합이설 사업의 재원은 제주대학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돼 있으나 기존 자산의 매각없이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충당했다.

당초 아라동 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은 학생 수용인원을 3000명 규모로 전제로 시설의 기능과 계획이 수립됐다. 진입로에서 좌·우로 분리되면서 구내를 순환하는 도로가 개설됐고, 좌측부분은 교육·연구시설군, 우측부분은 체육·업무시설군 그리고 중앙부분에 본관, 도서관, 광장이 배치됐다.

한편 용담캠퍼스의 지역개발학부와 교육학부는 1980년 2월 27일 아라캠퍼스로 이전했다. 초급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직후인 1955년부터 사용해 왔던 용담캠퍼스를 25년 만에 떠나게 됐다. 그러나 체육교육과는 아라캠퍼스에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완공된 1981년에 이전했고, 산업체 근로학생이 많았던 2부학부는 통학 편의를 위해 용담캠퍼스에 남게 됐다.

◇종합대학 승격과 캠퍼스 시설의 확충  
1982년 3월 1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에 분산돼 있던 시설통합 작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그해 12월 8억6372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상대학 1호관이 준공됐다. 1983년에는 6억4009만원을 들여 학생생활관 2호관이 세워졌다. 1984년 정문 및 수위실, 인문대학 2호관, 운동장 본



1978년 아라동 캠퍼스 공사현장으로 허허벌판 위에 건설중인 대학건물과 도로가 눈에 띈다(위). 1982년 3월 1일 종합대학 승격 후 캠퍼스 모습. 본관과 대학원동, 생명자원과학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이 보인다(가운데). 현재의 캠퍼스 전경(아래).

부석 및 관람석 등 5개 건물이 완성됐다. 1985년에 15억9302만원이 투입된 인문대학 1호관이 준공됐다. 1984년 9월 14일에는 중앙도서관도 착공됨으로써 종합대학으로서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시설을 대부분 갖추게 됐다.

1985년 10월 방사능이용연구소가 완공된 뒤 1986년 28억5682만원이 투입된 중앙도서관과 17억1887만원을 들인 학생생활관 2개동이 각각 준공됐다. 1988년에는 5억1888만원을 들여 공과대학 1호관 증축과 농대은실이 완성됐다. 1989년에는 33억9207만원을 들여 자연과학대학 1호관과 산업디자인 실습실 1호관이 준공됐다. 1992년에는 23억7156만원이 투입된 공과대학 2호관이 완성됐다. 1993년에는 31억9449만원이 투입된 학생회관이 5년 만에 새롭게 완공됐다.

1994년 1월에는 15억4470만원을 들여 외국어교육원이 준공됐다. 1995년 5월 17억9435만원이 투입된 인문대 3호관(미술관)과故고세진 국회의원이 자비 15억6420만

원을 들여 기부채납한 교수회관이 준공됐다. 같은 해 11월 35억8841만원이 투입된 공과대학 3호관이 세워졌다. 1996년 11월 37억5902만원을 들여 해양과학대학 3호관이 준공됐다.

1998년 7월에는 30억6824만원이 투입된 공동실험실습관이 준공됐다. 10월에는 32억9807만원을 들여 정보통신원 건물이 지어졌고, 12월 66억3920만원이 소요된 자연과학대학 2호관이 완성됐다. 공동실험실습관과 자연과학대학 2호관은 1995년 캠퍼스 내 개발제한지역에 대해 건설부로부터 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은 부지에 착공한 건물이다. 또한 1999년 7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으로 건립한 창업보육센터가, 8월에는 제2도서관 공사가 마무리됐다. 2000년 8월에는 서귀포시 보목동 옛 해양연구소 부지에 제3중 유스호스텔로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은 제주대학교 연수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2억5447만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정용복 팀장

## 대학생으로 시간 되돌릴 수 있다면

고해경(일어일문학과 09학번 · 현대캐피탈)      고경우(경영학과 07학번 · 신한은행 주임)

동아리 활동 해보고 싶어      캠퍼스 낭만 즐겼으면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다. 신입생 시절, 수많은 동아리 중 어느 곳에 가입할지 고민하다 결국 시기를 놓쳤다. 주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다. 학교생활에 좀더 참여하고 싶다. 내 목표에만 집중하다보니 학교생활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졌다.

돌이켜보면 대학생활을 통해 남은 추억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다.



학교를 다니며 소위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싶다. 수업시간은 잠시 뒤로하고 여자친구와 손잡고 학내의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꿈이었다.

너무 뽀뽀하게 학교생활을 보냈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후배들에게 조금은 젊음과 낭만을 즐겨보는 것은 어떻냐고 말해주고 싶다.



윤선희(건축공학과 04학번 · 스페이스 왓 대표)      김영환(수학과 92학번 · 학원강사)

A+ 가득한 성적표가 로망      학생회장에도 도전하겠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것이다. A+로 가득찬 성적표도 받아보고, 우수장학생으로 선정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다.

학창시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다양한 도전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시간이 없단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교류수학생을 지원해 해외에서 많은 경험도 쌓고, 인생에 도움이 될 멘토들의 여러 강연도 들을 것이다.



학생회 활동을 꼭 해보고 싶다. 학창시절에는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당시에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나 생각이 든다.

젊은 나이에 한 학교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 대학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은 '계산적 관계'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며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인생에 평생 남을 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양원철(윤리교육과 89학번 · 오희교 교사)      강영훈(행정학과 78학번 · 행정학과 교수)

친구의 길잡이가 됐으면      '튀는' 학생으로 변화를

학창시절, 학점과는 담쌓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수업시간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결국 자퇴를 택한 친구는 한동안 힘겨운 삶을 보냈다.

그와 술 한잔 할때 종종 '학교 다닐때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는 얘기가 나온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친구를 바로잡아주고 싶다. 학생들도 후회를 하기보단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학창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여러 대외활동을 하고 싶다. 나만의 봉사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서 활동할 것이다. 도전정신이 많이 부족했는데 좀 더 '튀는' 학생으로 변하고 싶다.

머리가 굳기 전에 배우고 싶은 학문들을 미리 다룰 것이며, 다양한 외국어를 익힐 것이다. 후배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학창시절을 보람차게 보냈으면 한다.



정리=강수빈 기자

## 국내 최장수 지방언론 제주일보 도민과 함께 달려온 69년! 도민과 함께 새 69년을 뚫다!



### [대한민국 광복 69년! 제주일보 창간 69년!]

1945년 조국의 광복과 함께 창간된 제주일보는 전국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된 전통지로서, 전국 지방사 중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창간 69년의 연료로 신문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를 주도하고 제주의 백년비전을 올곧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 실패 겁내지 말고 실험과 변신 시도해야

창간 60주년 기고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의 의미와 과제



김 동 주  
제주대신문  
동우회장

군군신신(君君臣臣)! 제주대신문 창간 60년의 과제를 생각하다 문득 떠오른 단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공자의 말이 떠오른 것은 아마 대학은 대학다워야 하고, 대학신문은 대학신문다워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명제에서 출발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대학신문다움이고, 대학신문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일 것이다. 사실 요즘과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신문의 발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TV와 같은 영상매체조차도 올드미디어 대접을 받는 오늘날 활자매체인 신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이 영상마저도 지루해하며 50자, 100자의 자극적인 문장에 열

광하고 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신문의 활자 자체를 친숙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신문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치부해 버려선 안된다. 특히, 대학신문은 우리가 더 실험하고, 더 변신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이 사회신문과 유사한 점은 둘 다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학신문이 사회신문과 다른 점은 목표는 아카데미즘을 지향하고, 성격은 아마추어리즘에 바탕을 두는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이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 즉 아카데미즘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추어리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세련되지 않아도 되고, 실험성이 강하고 실패에 관대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학신문이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대단한 강점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창간 60년을 맞은 제주대신문은 과감한 실험과 변신을

시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주대신문이 대학내 이슈에만 머물게 아니라 제주지역사회의 아젠다를 선정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안목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제주는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이고, 제주대신문은 도내 유일의 대학신문이다. 제주대신문의 공간적 환경은 서울 등 대도시 대학신문의 공간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사실상 제주지역 여론형성을 좌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대신문이 지역사회와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아마추어인 대학생이 만드는 신문이란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대학 교수들은 이론과 경륜을 갖춘 제주도내 최고의 필진이다. 아젠다 선정과 집필은 교수님들이 담당하면 된다. 물론 재학생이나

## 대학신문 특징은 아카데미즘과 아마추어리즘 학내 넘어 제주사회의 아젠다 선정에 주력해야

교류가 훨씬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진 대학신문은 제주대신문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신문이긴 하지만 1만2000명의 재학생과 100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6만여명의 동문을 독자로 확보하고 있다. 도내 지역신문이 1만명 미만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주대신문의 독자는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제주도 교수와 교직원, 동문 그리고 대학생은 대부분 제주지역 사회의 엘리트이자,

동문들에게도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교수님들로 구성된 막강한 필진은 제주대신문의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자산이다. 교수님들의 활발한 참여는 제주대신문을 보고 싶은 신문, 찾아 읽는 신문을 만드는 좋은 활력소가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사회적 아젠다 선정은 대학생기자 수준에선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기자만 만드는 신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사 작성 등 일반적 신문제작은 대학생

기자가 맡고, 2면 정도의 특집면은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뒤서 아이템 발굴과 필진 선정 등을 맡게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할 경우 기자출신 동문을 채용해서 기획 간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학원생을 신문제작에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법이든 대학이 보유한 두뇌와 인적자원을 제주대신문이란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있



2013년 9월 9일 제주시 더 호텔에서 제주대신문동우회 주최로 제11회 제주지성과의 대화 및 아라춘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필진으로 육성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쉽지는 않지만 쌍방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획을 개발하고, 학과와 동문에 대한 탐방기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대학신문 기자가 3D 업종 취급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과 공부하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으랴 경황이 없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신문기자는 그리 썩 내키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데다 내부 규율이엄시하고 가끔 군기도 잡혀야 하고, 마시고 싶지 않은 술도 억지로 마셔야 한다면 점입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의 여러 대학들은 학생기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장학금과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남학생 기자와 여학생 기사를 위해 대학 부근에 아파트를 2세 매입해 각각 합숙시키는 대학도 있을 정도다. 제주대의 경우도 학생기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총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스미디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제주대신문의 경영 여건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수만명의 안정된 독자와 잠재독자가 있고, 천여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 전문가 필진이 있으며, 기성신문처럼 뉴스를 취재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재정압박도 없다. 팩트에 승부를 걸지 말고, 비평과 아젠다 선정에 주력한다면 영향력도 키울 수 있다. 어쩌면 탐나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여건을 누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키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대신문의 창간 60년을 축하하며, 창간 60년을 계기로 제주대신문이 제주도내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 열독률과 충성도가 가장 높은 신문,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신문으로 도약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

사회공헌 1위 은행

100%국내자본은행

고객 수 2700만명

NH농협은행이 고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향해먼저라

NH농협은행 제주대학교지점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설 NH-CA자신은8

제주대신문

반복하며 돌고 도는 신문사 생활. 한명의 학생기자를 선택해 플레이 해 보자. 당신의 운영은?

박소연 기자

캐릭터 선택

기사쓰는 B  
편집하는 K  
Lv.3

캐릭터 선택

기사쓰는 B  
편집하는 K  
Lv.6

! 금요일이 됐습니다. 기사를 마감하십시오.

[기사쓰는 B] 취재를 끝내고 기사작성을 시작한다. 시간은 가고, 기사를 완성하기 전까진 집에 갈 수 없다!

↓

!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정을 받으십시오.

[기사쓰는 B] 기사가 한번에 통과됐다면 당신은 엘리트! 엘리트가 아닌 당신, 통과할 때까지 수정은 계속된다.

↓

! 마감에 늦어 편집자가 화났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십시오.

[기사쓰는 B] 마감에 늦어졌다면 편집자에게 사과하자. 늦은 기사 마감은 편집자의 마음고생으로 이어진다.

!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편집을 시작하십시오.

[편집하는 K] 기사를 확인하고 편집을 시작한다. 기사 마감에 늦었다면 주말 출근은 필수불가요소.

↓

! 기사의 틀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편집하는 K] 편할 것만 같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다. 로팅의 생각하는 사람 뺑치는 '생각하는 편집자'.

↓

! 마감에 늦어 편집자가 화났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십시오. ! 마감에 임박했습니다. 편집을 마무리 하십시오.

[편집하는 K] 편집 마감에 완료되는 순간! 끝났다는 성취감도 잠시, 다음 신문을 준비할 시간이다.



>> 대학에 헌신하는 숨은 분들을 찾아서

# 학내 청소·경비·건설 노동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학교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환경미화원 ‘고맙습니다’

학내 교통관리와 치안을 유지하는 경비원 ‘감사합니다’

각종 시설 설치·공사를 맡는 건설 노동자 ‘수고하십니다’

모두가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새벽시간, 잠든 캠퍼스를 깨우는 이들, 어둠으로 가득한 밤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이들이 있다.

빛나진 않지만 묵묵히 학교를 위해 일하는 그림자같은 존재들을 만났다. 이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편집자 주>

## ◇학내 환경미화원들의 일과

아침 해가 얼굴을 드러낼 즈음의 캠퍼스는 때무성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사이드병, 벤치 밑에 버려진 누런 담배꽂이 등으로 단장을 한 캠퍼스를 깨끗이 씻겨주는 이는 환경미화원들이다.

“보통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학교로 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 밤을 샌 학생들이면 모를까, 아침에 학교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겁니다.”

정문 입구에 들어서면 그들을 반겨주는 건 밤새 쌓인 쓰레기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치운 뒤 건물 내부의 쓰레기통을 비우러 향한다. 쓰레기통에는 ‘유리’, ‘플라스틱’ 등의 깔끔한 분리수거 표시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그런 표시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들은 분리수거 없이 너저분하게 놓여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비운 흔적도 보인다.

그들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통을 정리할때 가장 힘이 든다고 입을 모은다. 가깝게는 유리병 조각에 손을 베기도 한다.

청소를 시작하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흠뻑 젖은 쓰레기봉투는 금세 뽕뽕한 배를 자랑한다. 쓰레기통을 말끔하게 비운 그들이 향하는 곳은 화장실. 학생들이 남긴 순간의 귀찮음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들을 괴롭힌다. 레버를 누르지 않아 적나라하게 남은 웅변의 흔적, 변기의 목을 틀어막은 휴지통 치들. 짧은 시간안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그들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두 손 가득 담긴 쓰레기봉투의 무게가 괴롭혀 온다.

“일이 익숙해지면 이 정도 청소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에게 분리수거가 신경쓰이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은 우리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흐르는 땀을 채 닦기도 전에 강의실로 향한다. 강의실 쓰레기통에는 엉뚱하게 학생들이 먹다 버린 소주병과 맥주병이 나온다.

빈 병이 아닌 것을 쓰레기 봉지에 담가라다 하면 병의 내용물이 금세 봉지를 망가뜨린다. 그들은 거친 숨을 쉬며 다시 쓰레기를 주섬주섬 주워담는다.

정신없이 청소를 하던 그들이 아픈 허리를 곧게 펴때쯤이면 점심시간이 된다. 밥이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도시락통에 담긴 딱딱한 밥과 마른 반찬이 전부다. 다리를 뻗고 쉬고 싶은 마음도 좁은 계단과 허름한 휴게실이 방해한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잠시 모든 일을 잊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점심을 먹고 아픈 다리를 살짝 어루만지면 오후의 청소가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열심히 치운 캠퍼스는 어디로 갔는지, 그 사이에 새로운 쓰레기들이 자리잡았다.

늘 반복되는 노동에 짜증이 날 때도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가까이 집을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건네는 ‘수고한다’는 인사와 미소에 근육통도 사르르 사라진다는 환경미화원들. 단장을 깨우는 어머니에게 부리는 투정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보단 환한 미소를 건네는 건 아떨까.

## ◇경비원들의 일과

어두운 밤, 여학생 홀로 캠퍼스 거리를 다니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학내의 여학생들은 큰 걱정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등대처럼 불을 환하게 밝히고 다니는 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수많은 버스와 택시가 오가는 혼잡한 정·후문 교통을 정리하는 것으로 경비원들의 일과는 시작된다. 지각생들을 태운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 사이로 끼어들기라도 할때면 어김없이 그들의 저지가 이어진다.

“학생들이 많다보니 아침시간 혼잡한 교통상황에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되죠. 항상 제가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씁니다.”

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학내에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나 기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학내로 들어가려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침시간의 교통정리를 마치고 나면 안내센터의 업무가 이어진다. 교수를 찾아온 손님이나 학부모들이 학생을 찾아오면 경비원들은 친절함 지도처럼 길을 알려준다. 이따금씩 안내해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이 있으면 그 장소로 동행한다.

안내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교직원 주



건설 노동자들이 체육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11시 방향). 환경미화원들이 건물을 청소하고 있다(1시, 5시 방향). 경비원이 오전에 학내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7시 방향).

차장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을 마주친다. 경비원은 품안의 ‘딱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번호판을 메모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행하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다.

교직원들의 일과는 오후 6시 이후에 모두 종료된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는 두 번째 근무의 시작이다.

먼저 정문과 후문 사이를 정해진 시간에 순찰하며 학내의 치안을 살핀다. 후문에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싸움이라도 벌일 경우 이를 중재하는 것 역시 경비원들이다. 경비원들이 아침 근무보다 야간 근무시에 더욱 힘든 이유다. 술취한 행인들의 시비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변변한 방범용품 하나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경비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감을 갖는다. 이런 경비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의 감사표현이다.

“한번은 근무를 서고 있는데 술에 취한 여학생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딸자식 같아서 부축해줬는데 문득 여학생이 울더군요. 어릴적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슬펐다고 했어요. 그 뒤로 종종 감사하며 찾아오던 학생이 기억 납니다. 허허.”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원. 비록 몸은 피곤해도 학교의 치안을 자신의 등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

## ◇건설 노동자들의 일과

전국 대학가운데 규모가 4위에 랭크될 정도로 거대한 제주대학교. 이에 건물 신축이나 보수공사가 타 학교에 비해 잦다.

“힘이 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공사 중에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죠. 그리고 제 눈앞에 멋진 건물이 놓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보람함을 받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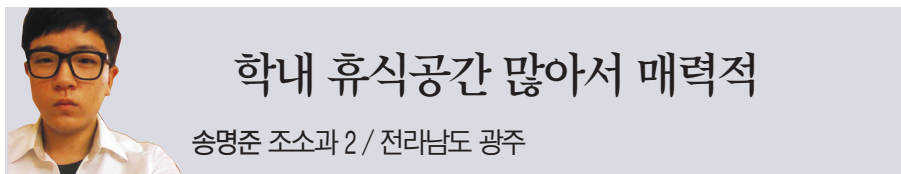
새벽부터 나온 건설 노동자들은 설렘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가 공사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발생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업현장은 언제나 위험하다.

사다리와 로프만을 믿고 높은 상공에서 작업을 하거나 효율을 위해 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은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아들·딸 같은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이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는다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도 맘 편히 쉬기 힘들다.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내에 노동자 전용 휴식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대한 건물을 손쉽게 짓는 이들이지만 소망은 너무나 소박했다.

강수빈 기자

>> 제주대에서 만나는 타 지역 학생



## 학내 휴식공간 많아서 매력적

송명준 조소과 2 / 전라남도 광주

### ▶출신 지역은.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 ‘빛고을’ 광주는 제주의 4·3사건처럼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지닌 곳이다.”

###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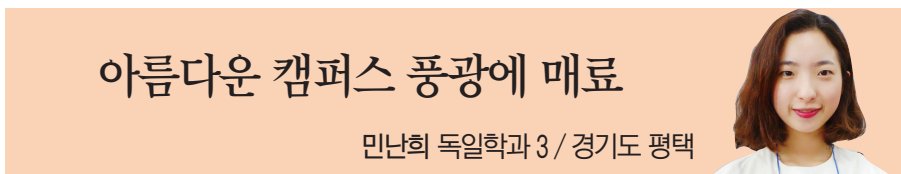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이 가끔 학교가 넓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장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내에 잔디밭이 많아 휴식공간으로 좋다. 버스를 이용해 학교를 돌아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 ▶아쉬운 점.

“학교의 위치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을 방문하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막차 시간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짧다. 처음에 제주도 버스 막차 시간을 듣고 막차 시간이 너무 빨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 아름다운 캠퍼스 풍광에 매료

민한희 독일학과 3 / 경기도 평택

### ▶출신 지역과 제주대를 온 이유.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전라도 고창군에서 다녔다.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한 덕분에 타지 생활이 익숙하다.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제주대학교에 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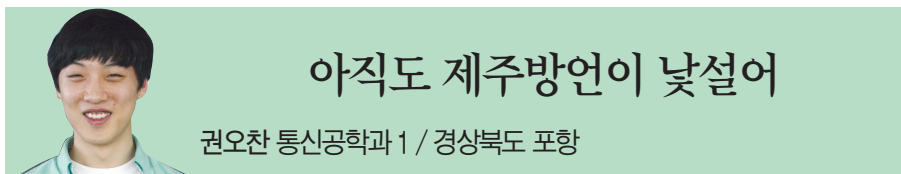
### ▶좋은 점.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기도 맑고 주변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국립대라서 학비가 저렴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캠퍼스도 무척 다양하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는 제주도를 다니며 휴식을 취하곤 한다.”

### ▶아쉬운 점.

“신입생 시절, 학과 동기들이 출신 고교로 나뉘어 어울리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제주 학생들이 타지 출신지역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가끔은 힘들다.



## 아직도 제주방언이 낯설어

권오찬 통신공학과 1 / 경상북도 포항

### ▶출신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출신이다. 포항은 포항 철과 과메기가 무척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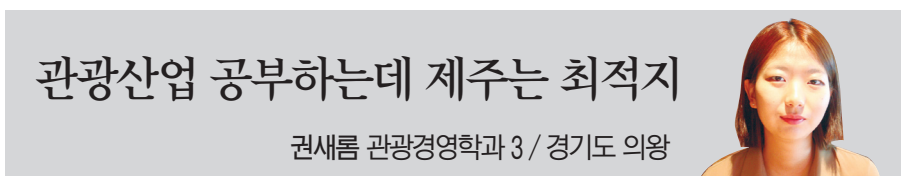
### ▶좋은 점.

“비행기 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학교를 다니다 방학이나 휴가철에 집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즐겁다. 학교 주변에 산책할 곳이 많아 틈틈이 걷기가 좋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 학교 생활을 더욱 재미있다.”

### ▶아쉬운 점.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동시간도 오래걸리는데 기숙사 복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쉽다. 학교 주변이 좀 더 개발 됐으면 좋겠다.

아직 제주도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 학기초엔 상대방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두세 번 물어봐야 했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 관광산업 공부하는데 제주는 최적지

권세름 관광경영학과 3 / 경기도 의왕

### ▶출신 지역과 제주대를 온 이유.

경기도 의왕시 출신이다. 평소 관광 관련 학과에 관심이 많았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관광산업과 떨어질 수 없는 곳이라 제주대에 오게 됐다.

### ▶좋은 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어 너무 좋다. 학내에 있는 올댓길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때 매력적인 공간이다.

### ▶아쉬운 점.

“사람들이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라 놀랐다. 다른 지방은 같은 학교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혹 SNS를 사용하다 내 지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일때 제주도가 좁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곤 한다.

기숙사 정원때문에 타지에서 왔음에도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

정리=김보라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

로 응원하세요

공명선거 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 하세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아나운서 김소영